

제7장 일제 강점기



제 1 절 일제의 식민 지배정책과 울산

제 2 절 울산의 민족운동과 3·1운동

제 3 절 일제하 민족해방운동과 울산

제1절 일제의 식민 지배정책과 울산

일제의 조선지배정책은 민족말살과 경제수탈의 식민주의가 추구되는 속에서 내외적 조건 즉 식민지 본국의 요구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민족적 저항 등에 규정받으면서 결정되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을 성격별로 구분하였다. 우선 1910년대를 제1기 무력지배 정책기로 규정했다.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 토지약탈과 식민지적 농업구조로의 재편, 민족산업의 억압, 민족문화말살, 독립운동탄압 등이 주요정책이었다. 3·1독립운동 이후 만주사변까지 1920년대는 제2기 민족분열화 정책기로 규정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기만적인 문화정치,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농민수탈, 식민지적 산업수탈,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탄압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 패전까지를 제3기로 규정했다. 대륙병참기지화 정책기로 파쇼적 침략전쟁에의 동원, 황민화정책에 의한 민족말살, 전시경제에 따른 수탈의 강화, 민족해방운동의 탄압 등이 주요 정책이었다.¹⁾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그에 대한 반발은 울산지역에서도 터져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수리조합 반대운동과 교육운동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중앙단위 차원에 머물러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에 대한 해명은 전무한 실정이며, 울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여기에서는 1920년대 후반 이후 울산·언양지역의 수리조합 반대운동과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맞선 울산지역 교육운동을 연구하여 정리하였다.

1. 일제의 농업정책과 울산지역 수리조합 반대운동

1) 일제의 농업정책과 수리조합

1920년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경제정책은 이른바 산미증식계획의 수행에 중점이 두어졌다. 이에 따라 조선 농업은 식민지적 미국단종경작형 산업구조로의 재편성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것은 당시 일본 지배층이 1920년대의 만성적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조선을 상품판매 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업원료

1) 강동진, 1978, 『일본의 조선지배정책사 연구』, 동경대출판부.

및 식량공급지로서 수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형적인 식민지적 경제구조로 재편성한 것이었다.²⁾

또한 그것은 산미증식계획을 축으로 해 토지개량사업과 식료품 가공 등의 경공업에 일본 국가자본의 투자를 증대시켜 고리대적, 자본주의적 착취와 반봉건적 소작관계를 재편성함으로써 수탈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의 중심이 된 토지개량 사업의 내용은 ①수리관개 설비를 개선하는 수리사업 ②밭을 논으로 바꾸는 지목 변환 ③국유 미간지(未墾地)의 개척 또는 물가의 간석지를 논으로 만드는 것 등 세 가지였다. 이러한 토지개량에는 개인에 의한 것과 수리조합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은 바로 수리조합의 확충 계획이라고도 일컬어졌다.

이처럼 수리조합사업은 토지개량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었다. 일제는 수리조합 확충을 통해서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하였다. 실제로 산미증식계획 기간 동안 수리조합은 급속한 증가와 함께 대부분의 토지개량사업은 수리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리조합사업은 산미증식계획의 중심 사업으로서 1920년대 1930년대 초반 일제 식민지 농업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수리조합은 대부분 식민지권력과 소수 대지주의 주도 아래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농민층의 광범한 몰락과 파탄을 초래하였다.³⁾

조선인 농민과 중소지주들에게 수리조합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함께 원한의 대상이었다. 1934년 현재 수리조합은 192개가 만들어졌다. 그 중 1,000 정보 이상이 52개, 3,000 정보 이상이 16개였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이북지역, 전북지역, 경남지역에서 수리조합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경남지역에서는 중소규모의 조합이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설립되었다.

수리조합은 총독부와 지방관청·관료의 직·간접의 원조와 참여 아래 수리가 불량한 논이나 밭, 미간지를 소유하거나 대부분은 그 지역의 대지주 특히 일본인 대지주들이 주도하여 설립하였다. 조합 설립을 주도한 대지주들은 수원을 확보하고 수리개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수리시설의 몽리토지까지 구역 안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조합이 설립될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자들은 기존 수리답의 소토지소유자를 비롯하여 조합비라는 새로운 부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자작·자소작의 중농·빈농층이었다.

이처럼 수리조합의 설립은 일본인 대지주가 중심이 되었고, 그들은 군수와 면장

2) 박경식, 1986,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3) 일제시기 수리조합에 대해서는 이매숙, 1985, 「일제하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 『한국사연구』 50·51 참조.

등과 한패가 되어 부정한 수단으로 설립청원서를 인가받았다. ‘조합원이 될 자 5인 이상이 창립자가 되어 조합 규약을 만들고, 조합원이 될 자의 토지 총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총독부의 인가를 받는다’는 수리조합령 제3조가 악용되었다.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2/3 이상의 동의는 쉽게 얻어졌다. 이와 같이 대지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설립, 운영 되어 조합 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인 중소지주, 중·빈농은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다.

수리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일본 정부로부터의 대부금과 총독부의 보조금이 제공되었다. 제2기 산미증식계획의 사업비 총액 3억 2,000만원 중에서 토지개량비는 2억 8,500만원이었는데, 이 중 7할인 1억 9,800만원이 동척과 조선식산은행을 통한 일본정부의 저리 대부금이였다. 동척과 조선식산은행은 저리자금에 의해, 지주는 토지수익의 증대와 토지점병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차입금과 이자는 결국 조선농민이 수리조합비를 부담함으로써 충당되었다.

앞에서 말한 일본인 지주 중심의 수리조합 설립과 부정문제, 수원(水源)과 몽리구역(蒙利區域)의 문제, 수리조합비 부담액의 문제, 부정공사 등에 대한 조선인 소지주, 자작농들의 수리조합 반대와 수리조합비를 소작농에게 전가하고 소작료를 인상하였다. 이로 인해 빈농들의 수리조합 반대가 1922년 1934년 계획이 중지될 때까지 빈번하게 일어났다.

수리조합 반대운동은 식민지 농업정책에 대한 항쟁으로서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에 걸쳐 농촌지역에서 소작쟁의와 함께 가장 빈번하고 활발하게 전개된 투쟁이었다.⁴⁾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된 이후 1928년 3월 현재까지 100여 개의 수리조합이 설치되었는데 반대 없이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즉 수리조합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설치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경남지역에서는 창원군, 양산군, 밀양군, 함안군, 사천군, 고성군, 울산군 등에서 수리조합 반대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2) 울산의 수리조합 반대운동

일제하 울산지역에서도 1927년 이후 수리조합 반대운동이 조선인 지주와 농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먼저 1927년에 발생한 울산수리조합 반대운동을 살

4) 수리조합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박수현, 1993, 「식민지시대 수리조합 반대운동」, 『중앙사론』 7 참조.

펴보자.

1927년 10월 일본인 대지주 중곡덕일(中谷德一), 조선인 대지주 이현보 등을 대표 위원으로 한 울산수리조합 창립위원 총회가 열렸다. 이들 대지주 특히 일본인 대지주들이 수리조합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까닭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대규모 미간지나 열등지(劣等地)로서 토지개량이 시급했고, 여기에 일제가 수리조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그 수익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일제시기 울산지역 대지주들에 관한 사항은 자료의 미비로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참고로 일제시기 울산군에서 간행한 『울산안내』라는 책자에 의하면, 1913년 9월 울산군 지주회가 창립되었다.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창립된 울산군 지주회의 회원 자격은 논 100두락(斗落) 이상 또는 논밭을 합해 150두락 이상의 대토지 소유자이다. 1917년 현재 회원은 120명이었다.⁵⁾

수리조합사업은 처음부터 이들 대지주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산미증식계획의 목표 달성에 급급한 지방관리들이 대지주와 긴밀한 협조 아래 적극적으로 조합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수리조합은 처음 설치될 때부터 강제성이 동반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수리조합이 들어서면 수리조합이 필요치 않은 지역까지 강제로 조합구역에 편입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울산지역에서도 울산수리조합이 몽리구역으로 선정한 울산군내 울산·하상·농소면의 조선인 지주들은 맹렬히 수리조합 설치에 반대하였다. 조선인 지주들은 1927년 11월 20일 지주대회를 개최하고 수리조합의 창립은 유해무익인 동시에 민(民)의 생활을 박탈할 것이라 하여 반대하였다. 이들은 관계 당국에 반대 취지를 진정하고, 지주들에게 반대 날인을 받는 한편 지방 여론을 환기코자 지역사회운동단체인 울산 민우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수리조합 반대위원회는 12월 9일 울산부 이규명(李圭明)의 집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리조합 반대사무소를 설치하는 한편 상무위원 박주복(朴周馥), 최신줄(崔辛茁), 김문성(金文星) 등을 선정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⁶⁾

하상면은 본래 비옥한 토지로 관개수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웬만한 한재에도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옥토임으로 침수토지는 극소 부분인데 거액투자인 수리조합 창립은 몽리는 고사하고 도리어 많은 손해가 있었다. 그래서 12월 9일 하상면 동리(東里) 동사(洞舍)에서 울산수리조합 반대지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12월 15일 890여명의 대지주 연서로 총독부당국에 제1차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하상면을 수리조합에

5) 울산군, 1917, 『울산안내』.

6) 『조선일보』 1927. 12. 13.

서 제외해 달라는 진정서에서 ①하상면은 관개수원이 풍부하여 황전(荒田) 또는 육전(陸田)으로서 수답(水畓)으로 개경(改耕)할 것이 전무함으로 수리공사가 불필요함 ②하상면은 침수구역이 극소하여 다액 투자인 방수공사가 불필요함 ③침수구역이 극소하여 대개가 옥토요 침수되는 토지는 다만 해안가의 약간의 토지에 불과함 ④하상면은 수리조합으로 몽리는 고사하고 절대 손해임으로 울산수리조합 몽리구역으로 편입됨을 절대 반대함 ⑤하상면 지주는 울산수리조합 창립위원인 하상면 면장이 고래구(溝) 개수를 빙자하고 농민들을 기만하여 울산수리조합 동의서에 날인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절대 반대한다 하였다.⁷⁾

농소면에서도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1927년 10월 27일 울산수리조합 창립 반대로 농소면민 700여 명이 연서하여 대표 박영수(朴永洙)가 상경하여 총독부에 진정하였다. 이에 11월 15일 울산군수가 출장, 설유하면서 기왕부터 관개가 편의한 옥토는 전연 수세(水稅)가 없을 터이니 농민은 전혀 해가 없다 하였다. 그러나 농소면민들은 수리조합이 만들어진 이상에는 원래 옥토를 매몰하여 수도(水道)를 만들 뿐만 아니라 개간지는 전무하고 새로이 주수(注水)할 여지가 없으니 이익은 없고 손해가 막대하므로 절대적으로 반대하였다. 게다가 수리조합 서기가 몰래 여러 수단으로 각면 지주들에게 동의서 승낙을 강청하러 다니므로 면민은 더욱 분개하여 600여 명 연서로 대표 박영수가 재차 진정서를 12월 2일 제출하였다.⁸⁾

다음 해인 1928년 2월 13일에는 하상면 동리 동사에서 하상·농소면 지주가 연합회를 열었다. 하상면 김성근(金成根)의 사회로 진정위원을 선정하고, 총독부당국에 지주 1,700여 명의 연서로 진정하기로 하였다. 진정위원은 하상면 이종목(李鍾穆), 최현표(崔鉉杓), 농소면 박영수(朴永洙), 이종필(李鍾弼) 등이다. 진정의 이유는 울산수리조합 예정몽리구역 내 총 실경면적 1,490여 정보 중 대부분은 1,03정보를 점한 하상, 농소면의 답(畓)으로 신간(新墾) 혹은 근간지(近墾地)가 전무하고 모두 개간한지 수백년이나 되었는데 그간 용수부족 없이 순조롭게 경작하여 왔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토질이 비옥한 점질 양토로 보수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경주군에서 내려오는 동천강의 하류유역에 있으므로 강수(降水)를 관개에 이용하여 특별히 수리조합을 설치하여 관개의 설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토지들은 동천강 인근에 있어 동남방으로 경사하여 자연배수가 양호하고 동천강은 범람위험이 적으므로 인공적 배수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⁹⁾

7) 『조선일보』 1927. 12. 21.

8) 『조선일보』 1927. 12. 8.

9) 『조선일보』 1928. 2. 19.

1928년 3월9일부터 경남 순시차 출장하였던 총독부 토지개량부장이 경주에 머무는 것을 안 울산군 울산·하상·농소 3개 면 지주들은 3면 연합회의 대표 이규명(李圭明), 박제영(朴濟英), 이종필(李鍾弼) 외 5인을 안달(安達)부장에게 보내어 반대 이유와 창립자 측의 불법을 일일이 진정하였다. 이어 안달 부장에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자 농소면 호계에서 200여명, 하상면 병영에서 800여명, 울산부에서 500여명의 반대지주가 각각 시위를 벌였다.

반대측의 요지는 울산수리조합 예정 물리구역은 관개배수가 충분하고 수해에 하등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토지가 비옥하여 1단보(段步)에 평균 수확이 인() 3석 이상, 토지가(土地價) 250원 이상이니 수리조합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제 군과 면당국에서 수리조합창립측을 옹호하여 위협 혹은 사기로서 수리조합 동의서에 날인케 하였으므로 창립인가를 말아달라는 것이었다.¹⁰⁾ 그러나 공사는 예정대로 강행되었다. 이에 울산지역 주민들은 수리조합 강제설치와 매수가격 불공평 등을 이유로 사업용지 불매운동(불매동맹 조직)을 벌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와 같이 울산수리조합은 대다수 지역주민의 이해나 지역적 특성이 배제된 채 몇몇 일본인·조선인 대지주와 식민지 권력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일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조선인 중소토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합원이 되거나 혹은 사업용지로 지정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울산수리조합 반대운동은 대부분 조선인 지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었고, 특히 지주와 소작인이 함께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수리조합의 강제성과 과중한 부담은 지역주민 모두의 파탄을 초래할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다수가 함께 반대투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1930년 2월에도 울산에서 수리조합 공사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번에는 공사진행상의 부정문제와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문제가 되었다. 1929년 울산군 내에는 한재이재민이 수천여 명에 달하는 참담한 상태이므로 울산군수 주최로 이재민 구제기성회를 조직하였다. 구제기성회가 처음 생겨날 때는 군수가 수리조합당국과 교섭하여 노동임금을 될 수 있는대로 올리고 또 각 면장에게 통첩하여 이재민을 구제하겠다고 일반에게 선전하였다. 그러나 노동임금을 조정하였다는 것이 최고 60전으로 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고 회의 존재까지 알 수 없어 민중들이 비난하였다. 이에 민우회에서는 군과 도당국에 항의문을 제출하고, 이재민을 구제코자 동정금을 모집하였다.¹¹⁾

울산수리조합 공사장에서는 출역노동자가 하루 1,000여 명에 달하였으나 임금이

10) 『조선일보』 1927. 3. 14.

11) 『조선일보』 1930. 1. 22.

너무 헐해서 노동자의 참상은 극도에 달하였다. 울산노동조합에서는 조합장 박봉수(朴奉壽) 등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임금은 장정 이하로 15전부터 최고 60전까지인데,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39전 1리밖에 안되었다. 다른 지방에서 온 노동자들 중에는 식비 부채로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영양 불량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사람이 있는 반면 공사청부업자들은 수만원의 부정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구체적 참상을 알게 된 울산노동조합에서는 크게 분개하여, “울산수리조합 공사장에서는 밥값만 하루 40전인데, 노동임금은 하루 평균 39전 1리밖에 안 주니 그 책임은 울산군수와 수리조합에 있다”며 군수와 수리조합에 항의문을 제출하였다.¹²⁾ 노조의 항의를 받은 군수와 수리조합은 2월 8일 수리조합장 이현보(李鉉寶)와 서기 김영하(金榮河)를 보내 노동조합장 박봉수와 함께 실지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노조의 조사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공사 청부업자의 부정공사도 발견되었다. 노임과 평수 협잡문제 이외에도 일본인 공사청부업자가 청부한 태화강 우안공사장 제방에서 강편으로 20간은 소위 호안(護岸)이라 하여 흙을 파지 못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5간에 이르기까지 마음대로 흙을 파서 사용한 것이다. 이 문제는 금전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었다.¹³⁾

울산노동조합은 노동임금 외에 청부자의 이익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선 제3단 청부자에게 제1·2단 청부자가 이익을 본 것이 4할 9푼 이상으로 총 공사비 43만여 원에 비하면 아무 하는 일도 없이 다만 청부하였다는 명의만 가지고 20여 만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그 외에도 노동자 착취라든지 부정 사건이 많아 울산청년동맹과 신간회울산지회, 노동조합 등 사회단체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하여 연합으로 1930년 2월 25일 울산청년회관에서 부정청부업자 성토연설회를 개최코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경찰이 이를 금지시켰다.¹⁴⁾

이처럼 울산수리조합 공사장에서는 노동임금이 하루 평균 40전도 되지 못하여 노동자의 곤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지방의 여론이 자못 비등하였다. 춘궁기에다 더구나 1929년 한재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 부득이 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수리조합공사의 일이나 하려고 읍내로 모여드는 자가 날로 증가하여 그 수가 실로 수천여 명에 달하였다. 수리조합 공사의 노임은 하루 한 사람의 밥값도 못되므로 연

12) 『조선일보』 1930. 1. 30, 2. 6.

13) 『조선일보』 1930. 2. 14, 2. 28.

14) 『조선일보』 1930. 2. 28.

어먹는 사람이 날로 격증하여 웬만한 집이면 한 때 100여 명의 걸인을 치르게 되어 지방에서는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수리조합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 지고 있었다.¹⁵⁾

1930년 4월 울산수리조합에서는 공사청부업자와의 사이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 긴급 평의회를 열었다. 그리고 강경한 태도로 일인 청부자 동아조(東亞組)에 대하여 ①20간 이내의 호안훼손(護岸毀破)에 대하여는 원상대로 회복하고 그 단면은 시멘트 또는 석단을 구축할 것 ②공사는 모두 하청부(下請負)를 인(認)치 아니할 것 등 8개 조목의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침내 동아조에서 그 요구 전부를 승인하여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이처럼 울산수리조합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부정 부실공사문제는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¹⁶⁾

울산 수리조합 관계 지주들은 지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930년 3월 31일 울산수리구역지주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김성진(金聲振)외 5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말썽 많은 수리공사문제와 창립비 용도를 조사케 하였다. 울산수리조합은 이처럼 적지 않은 파란곡절을 겪으면서 공사 중이던 바 1930년 미가 폭락 이후로는 수리조합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다

울산수리조합구역지주회에서 1931년 3월 29일 지주총대회를 소집하였다. 울산 청년동맹회관에서 김성진의 사회로 개최하여 창립비에 관한 문제에 들어가 장내는 긴장상태였다. 창립비 3만 2,000여 원 중 의문스럽고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의 금액이 6,600여 원에 달해 이를 서면으로 일일이 수리조합에 질문하였으나 애매한 대답만 있을 뿐이었다. 조합이 부당 횡포한 것은 일일이 말할 수 없으나 공사비 40여 만원은 불과 10만원이면 충분할 듯하였다. 그러나 몽리면적은 대체로 1,200여 정보인데, 소비한 금액이 벌써 86만 7,000여 원에 달한 즉, 지주들이 부담할 수세는 1단보 평균 6원 75전에 해당하였다. 이를 20년으로 기준 하더라도 300여 원이나 되어 지주들은 여지없이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최후까지 싸우기로 결의하였다.¹⁷⁾

그러나 울산수리조합 설치의 일제 총독부 권력과 일부 대지주의 연합 아래 강행되었다. 이러한 일방적인 진행에 반대하는 운동이 1930년대 전반기에 다시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후로는 이를 알려주는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15) 『조선일보』 1930. 3. 19.

16) 『조선일보』 1930. 4. 1,

17) 『조선일보』 1931. 8. 2.

3) 언양의 수리조합 반대운동

자작농, 자·소작농은 수리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작은 우물이라든지, 저수지를 만들어 급상(汲上)관개를 해왔다. 그러나 수리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들은 몽리구역 내에 편입되었고, 그 결과 단보 당 평균 6원 10전의 수세를 지불해야 했다. 만약 1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액수는 61원이나 되어 자작, 자·소작농들은 결정적인 곤란을 겪게 되어있었다. 그 때문에 중소토지 소유자와 영세농은 수리조합 설립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예가 언양지역이다.

1929년에는 언양에서도 수리조합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언양에서는 창립준비 중에 있는 언양수리조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여 6월 9일부터 관개 농민 및 지주 대표회의를 3~4차례나 열고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대측의 의견은 수리조합 창립준비위원 중 한 사람인 이모(李某)가 1927년 봄경에 언양면 다개평리(茶開平里) 일부의 전야(前野)에 있는 약 100두락의 한재지(旱災地) 관계자들에게 다개평리 후야(後野)에 저수지를 신축하여 다개평리의 한재지를 구하고자 동의를 청하였으나 부락민 대다수가 반대하였다. 또 그때 일시적으로 저수지를 신축하는 줄로만 알고 동의했던 소수 부락민도 그것이 언양수리조합 발의였던 것임을 알게 되자 모두 속은 것을 분개하여 수리조합창립준비회에 동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부락민 전체가 절대 반대를 하고 나섰다.

더구나 수리조합준비측에서 관개지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언양보(속칭 浮里淤) 소속 약 3,000두락의 지역을 구역내에 편입하였다. 언양부리보는 수원이 풍부하여 과거 수백년 동안 한재로 고통을 당한 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과중한 수세만 물게 되는 유해무익의 수리조합은 결국 우리 농민생활을 위협케 하는 것이니 관개 작인 및 지주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하였다.¹⁸⁾

해당구역 관개지주 및 작인들은 언양수리조합 창립을 반대하여 수리조합 창립반대위원회를 조직하고 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운동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1929년 8월 1일 언양청년동맹회관에서 반대지주회를 개최하였다.¹⁹⁾ 이처럼 언양수리조합 반대운동도 울산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수지가 필요없는 지역이 수리조합 구역으로 강제 편입된 것에 반발하는데서부터 출발하였다. 더구나 조선인들 스스로 자치적인 수리기관을 설치하자 일제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언양수리조합 몽리구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18) 『조선일보』 1929. 6. 22.

19) 『조선일보』 1929. 7. 26.

언양 부리보개량계(浮利淤改良契)는 부리 몽리구역 내의 지주, 소작인들이 모여서 수리 및 토지개량사업을 목적으로 한 민간자치적 수리기관을 설립하고자 해당구역이 1929년 8월에 언양수리조합 편입구역으로부터 제외되자 조직됐다. 관계자들은 1929년 8월 이후 6달 동안에 1,000여 원의 사무비를 들여 공사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1930년 3월 중순부터 공사에 착수기로 했다. 그런데 돌연 경남 도당국으로부터 부리보구역의 일부분(총 1/3)을 언양수리조합구역에 편입하였다는 통보가 전해졌다. 부리보개량계 당사자들은 당국의 무리한 처사에 분개하여 3월 14일 계장(契長) 및 서기가 도당국에 가서 항의하고 평의원회를 열고 선후책을 강구하였다.

계장 김이득(金利得)은 “우리 언양부리보개량계는 지금 창립 준비중에 있는 수리조합과 용감히 싸운 결과 수리조합 구역으로부터 제외된 부리보 몽리구역 내의 지주와 작인들이 모여서 경영하는 수리사업기관이다. 우리는 공사준비 비용으로 그간 1,000여 원을 소비하여 설계가 다 되고 오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작정인데 뜻밖에도 도당국에서 부리보구역 일부분을 수리조합구역으로 편입시켰다. 부리보구역 면적을 135정보 이상이나 줄이면 약 1/3의 감소로 도저히 예산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곧 대회를 소집하여 구역 회수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였다.

더구나 1929년 8월 수리조합반대지주대회에 울산군수가 참석하여 부리보구역은 수리조합 구역으로부터 제외한다고 언명하였으므로 계를 조직하고 공사를 준비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언양 부리보개량계구역 축소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코자 지주 및 작인대회를 1930년 3월 14일 언양청년동맹회관에서 개최하였다.²⁰⁾ 언양청년동맹관에서 언양부리보개량계 지주대회를 개최하고 동계 서기 김일환(金日煥)의 사회로 언양수조에 이부된 구역 회수에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반대위원을 선정하였다.²¹⁾ 반대위원은 오위영(吳胃泳), 신천호(申天昊), 오문영(吳文泳), 조성언(趙性彦), 오배근(吳培根), 김일환 외 33인이고, 반대진정위원은 오배근, 김일환, 오일영(吳一泳), 신인호(申仁昊) 등이다.

1931년 3월말경에 창립인가 여부가 결정되리라는 언양수리조합에 대하여 반대지주들은 맹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3월 2일에는 권형술 외 422명이 동의, 날인한 반대진정서를 군·도·총독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하였다. 반대동의자는 날로 늘어나 창립준비위원 중에도 반대동의자가 89명이나 되었다. 언양수리조합 반대운동은 마침내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3월 3일 언양청년동맹회관에서 반대지주대표 권

20) 『조선일보』 1930. 2. 28.

21) 『조선일보』 1930. 3. 19.

형술의 사회로 반대지주대회를 개최하고, 끝까지 반대운동을 나가기로 하였다.²²⁾

대다수의 지주가 맹렬히 반대함을 무릅쓰고 기어코 설치하겠다는 면의 방침에 맞서 윤명오 외 425인의 연서로 권형술, 오일근, 이상설, 윤명오 등이 상경하여 그들의 사활문제인 연양수리조합 설치 반대를 진정하였다. 3월 7일에도 연양수리조합 창립반대 진정위원 오일근 등이 상경하여 총독부 수리과장을 면담하였다. 이어 3월 19일 연양청년동맹회관에서 제2회 반대지주대회를 개최하였다.²³⁾

연양수리조합은 260정보의 몽리구역과 620명의 지주를 포함하고 있는 바 10여명 대지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소지주와 자작농이었다. 이들에게는 수리조합이 생활에 곤란함을 초래함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어서 연양수리조합 설립 반대운동은 격렬하게 진행하였다. 19일 연양청년동맹 회관에서 각지에서 모여든 200여명의 지주가 이규경의 사회로 제2회 반대지주대회를 개최하고 오일근으로부터 총독부 수리과에 진정한 보고를 들었다.

참석자 중 김정표는 ‘오늘 지주대회에 와서 들으니 창립준비회 측에서 일반 지주들에게 동의를 얻을 때에 여러 가지 부정한 사실 즉, 연양면장은 관권으로 순진하고 무지한 지주들을 압박하고 별별 감언이설로 꾀었다 하며, 더욱 심한 것은 남의 입장을 위조한 것과 억지로 날인시켰다는 것 등은 우리 반대지주회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연양면민 전체에 관련되는 지방적 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실행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지금까지 등한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임 집행부로 위원장 이규경, 부위원장 이경연, 서기 오일근, 위원 윤명호 외 14인을 선정하였다.²⁴⁾

연양지역 주민들은 1931년 2월 이후 수개월 동안에 600지주의 맹렬한 반대운동 속에 창립위원 측의 여러 가지 부정사실을 폭로하여 창립인가를 중지케 하였다. 연양청년동맹회관에서 반대지주대회를 개최하여 수리조합 창립을 반대하였다.²⁵⁾ 그러나 연양수리조합 반대운동도 울산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지주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과 관청의 일방적 진행으로 인해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2. 식민지 교육정책과 울산지역 교육운동

1)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

22) 『조선일보』 1931. 3. 6.
23) 『조선일보』 1931. 3. 8, 14.
24) 『조선일보』 1931. 3. 24.
25) 『조선일보』 1931. 12. 30.

1894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근대적 교육제도가 만들어져 사범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 의학교, 농상공학교, 소학교 등의 관공립학교가 설립되고, 근대적 교육이 시작되었다.

한편 1905년 전후부터 애국적 계몽가, 선진적 인텔리들은 민족국가의 위기를 맞아 교육을 중시하여 일제침략과 봉건적 유교교육에 반대하고 자주적인 근대적 부르주아교육의 실시를 강조하였다. 계몽운동가들은 학회, 교육회 등을 조직하고 학교건설·운영운동, 민중계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 정규의 사립학교를 비롯한 서당, 각종 강습소, 야학회, 노동야학 등이 설립되었다.

일제는 1908년 사립학교령, 서당에 관한 훈령, 학회령을 공포하고 사립학교, 서당의 애국교육에 간섭하였다. 이들 법령에 의하면 학교나 서당 그리고 학회의 설립은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과용 도서는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침략정책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폐쇄할 수 있었다. 이들 법령은 즉시 적용되어 사립학교는 점차 폐쇄되고 또한 서당에서 일본어를 강제하여 민족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간섭·감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회, 교육회에 대하여도 학회령을 보완법과 같이 적용하여 반일적인 학회들은 해산시켰다.

일제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조선인 교육의 자주적 권리를 더욱 광범위하게 박탈하였다. 조선교육령은 ①황제에게 충량한 일본신민을 양성하는 것, 즉 일본 국민다운 품성을 함양하고 국어(일본어)를 보급하는 것 ②민도에 맞는 보통교육, 특히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인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예로 육성하려는 방침에 따른 것였다.²⁶⁾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방침에 기초한 학교 교육의 실시도 너무나 빈약하여 조선 재류 일본인 교육과 비교할때 매우 차별적인 것이었다. 1919년의 경우를 보면 총 인구 1,700만여명 조선인 자제의 보통학교가 484개교, 아동 8만 4,000명이고, 재류 일본인 33만여 명의 일본인 자제 소학교는 393개교, 아동 4만 2,000여 명이였다. 또 중등교육의 경우 조선인의 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가 40교, 학생 5,800여 명, 일본인 중학교, 실업학교가 19교, 학생 4,700여 명이였다.

일제는 1910년 이후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정책을 강화해갔다. 조선총독부는 사립학교령의 내용을 더욱 강화한 ‘사립학교규칙’을 1911년 10월 공포하고, 학교 설립은 물론 교원의 채용, 교과과정,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내용 전반에 걸쳐 통제, 감독을 엄하게 규정했다.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가 강제적으로 행해

26) 박경식, 1986, 앞의 책.

졌다. 그리고 1915년 3월 사립학교규칙을 대폭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교과 제한, 일본인 교원의 채용, 일본어를 말할 수 없는 교원 배제 등을 행하고, 충량한 황국신민의 육성이라는 일본국가가 요구하는 교육방침을 보다 강화시켰다.

이처럼 이 시기 많은 사립학교가 탄압 받고 폐쇄 당하고 있었다. 1910년에 1,973교, 8만여 명의 학생수가 1919년에는 742교, 3만 8,000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서당은 사립학교와 더불어 민족적 사상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일제는 1918년 2월 ‘서당규칙’을 공포하여 서당에 대한 간섭과 탄압을 꾀하였다.

3·1운동이 발발했을 때 사립학교, 서당을 비롯하여 보통학교에서 전문학교에 이르는 관공립학교의 조선인 학생이 다수 참가하여 많이 검거되기도 했다. 특히 학생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에 일제 당국은 큰 위협을 느꼈다. 그 때문에 일제는 조선의 교육, 문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일시동인’, ‘내지연장주의’를 내걸고 민족동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1920년 11월 조선교육령 일부를 개정하여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또 고등보통학교의 조선어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하고, 나아가 고등보통학교에서 보습과를 설치했으나 교과과정에서 조선어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보통학교규칙’을 발표하여 교과목에 일본역사와 일본지리를 강제로 배우도록 하였다. 총독부는 나아가 1922년 12월 ‘신교육령’을 공포했다. 이 신교육령은 일시동인에 기초하여 내지준거주의를 취하고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를 채용하여 내선공학(內鮮共學)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형식상으로 일본의 교육제도와 동일하게 한 것은 민족적 자각과 독립사상을 없애고 일본인화 교육의 강화를 의도했기 때문이었다.

2) 울산지역 교육운동²⁷⁾

그러면 일제하 울산지역의 교육상황을 살펴보자. 1916년 울산군에서 발행한 책자에 의하면 일본인 자녀교육과 조선인 자녀교육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 1916년 8월 현재 일본인 자제를 위한 관내 소학교는 울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울산만공립심상소학교, 방어진공립심상소학교, 서생공립심상소학교 등 모두 4개교가 있었다. 학생수는 총 297명이다.²⁸⁾

27) 일제시기 울산지역의 교육에 관한 고찰은 교육사적 측면에서의 연구성과가 있다(울산교육청, 2001, 『울산교육사』). 또 본서 「사회·문화편」의 ‘교육’ 항목 일부도 이에 해당한다. 본고는 이를 염두에 두고 특히 민족해방운동 차원에서 이 시기의 교육을 서술하였다.

28) 울산군, 1917, 앞의 책.

반면 관내 조선인 자녀의 교육은 2개의 공립보통학교와 1개의 간이농업학교, 4개의 사립학교와 151개의 서당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1907년 6월에 설립된 울산공립보통학교는 학생수가 254명으로 남학생 198명, 여학생 56명이었다. 1913년 5월에 설립된 언양공립보통학교는 여학생은 없고 남학생만 127명이었다. 1913년에 설립된 울산공립간이농업학교는 남학생 35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사립학교는 동면 서부리의 사립개운학교(학급수 2, 총학생수 50명), 범서면 굴화리의 사립진명학교(학급수 2, 총학생수 45명), 하상면 병영의 사립일신학교(학급수 2, 총학생수 62명), 범서면 구영리의 사립일진학교(학급수 2, 총학생수 37명) 등이다. 사립학교의 학생은 전체 194명 중 189명이 남학생으로 여학생은 사립일신학교의 5명이 전부였다. 이것은 당시 여성교육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것을 메우기 위해 울산공립보통학교와 병영의 사립일신학교에는 여자부가 개설되었다.

부족한 교육시설을 대체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서당은 울산지역의 마을마다 설치되었는데, 수용인원은 1,524명이었다. 야학은 1910년 3월 창립된 동면 당천리의 대창야학교와 중남면 신화리 노동야학이 있었다.²⁹⁾

1926년 무렵에 가서 울산지역의 교육시설이 약간 증가하였다. 울산지역 신교육의 효시이자 지방교육에 많은 공헌을 끼친 사립 개진학교(開進學校)의 뒤를 이어 1907년에 설립된 울산공립보통학교를 위시하여 학성·동면·언양·온양·웅촌·서생·두동·중남·농소·온산·대현 등 12개의 공립보통학교가 있고, 1926년에는 농업보습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외에 40여 개의 사설강습회 및 서당이 있어 교육의 결함을 보충하였다.³⁰⁾

이처럼 울산지역의 턱없이 부족한 교육시설과 민족의식 양양을 위해 뜻있는 인사들은 각종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앞장섰다. 그러면 192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된 울산지역 교육운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해영학원(海英學院)은 고등강습회의 후신으로 울산지역의 최고학부이다. 당초 울산청년회에서 경영하던 것을 학감 박병호, 이사 양봉근, 손천향 등이 그 뒤를 이어서 강사를 겸임하며 유지하던 중 1926년에는 독지가의 기부로 중흥의 길을 열었다.

양정의숙(養正義塾)은 상남면 거리(巨里)에 위치했다. 1921년 2월 유지 이규화(李圭華), 이규천(李圭千), 김석한(金錫漢), 김우경(金佑經), 이규상(李圭相), 이규장(李圭章) 등의 발기로 창립하였다. 이규장은 모든 교무를 담당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하

29) 『조선일보』 1923. 7. 10.

30) 『조선일보』 1926. 9. 6.

였다. 양정의숙을 중심으로 상남 하북면의 노동교육의 성황은 이규장의 열성에 말미암은 바가 크다. 보성학교(普成學校)는 동면 일산리에 있었는데, 1922년 5월 1일 동리 성세빈(成世斌)의 발기로 창립되었다.

1920년대 초반 정식 교육기관이 아닌 사립학교, 강습소, 그리고 의숙 등이 울산 각지에서 생겨난 것은 당시 입학난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가정형편상 빈곤이나 입학난으로 인한 학령 초과로 적기에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았던 데서 기인한다.

울산공립보통학교는 울산청년회의 알선으로 신입학생이 예정수 이외에 초과한 아동 100여 명의 수용책에 대하여 1년 학급을 증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울산공립보통학교는 지원아동의 수용을 위하여 학급 증가를 위한 학부모회를 개최하고, 재정 마련을 위해 울산면 전반에 걸쳐 빈부 등급에 따라 9,00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1922년 3월 2일에는 학급 증가를 위해 울산청년회관에서 울산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2교실 증축비와 6개년간 경상비 합계 1만 5,000원을 울산 면민이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울산공립보통학교는 1922년 5월 학령(學齡) 초과 또는 교실 부족으로 입학치 못한 생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임시 강습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³¹⁾

서생면 진하(鎭下)에는 학교가 없어 인근 공립보통학교와의 거리가 약 4리 7리나 되어 자제의 통학상 불편이 많았다. 1921년 8월 서생리의 유력가 이규현(李奎眩), 신대운(申大允), 장병규(張炳奎), 조성호(趙性鎬) 등이 재산을 기부하여 사립 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약 2,000여 평 면적에 교사 9칸이었다.³²⁾ 서생 사립학교는 1922년 7월 13~15일간 부산진교회 남녀 찬양대를 초빙하여 음악회를 열고, 기부금은 학교 악기 구입비에 충당하였다. 1923년 6월에는 서생공립보통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하였다.

1920년대 초반 울산 각 면에서는 공립보통학교의 부족으로 진학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었다. 따라서 각 면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공립보통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나 모금활동 또는 학급 증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1921년 3월 웅촌면 공립보교 설립기성회, 1921년 8월 대현면과 삼동면 학교설립비 기부, 1922년 5월 면장 주도로 중남면 신화리에 임시강습회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울산군 각 면에는 교육열이 고조되어 대현면은 면 유지의 기부금이 8,000여 원에 달하여 교사 건축에 착수하였으며, 강동면 정자리, 두동면의 경우도 교육열이 뜨거웠다.³³⁾

31) 『동아일보』 1921. 5. 7 ; 1922. 3. 12 ; 1922. 5. 13.

32) 『동아일보』 1921. 8. 7,9 ; 1922. 7. 27.

3·1운동 이전 시기 울산지역의 민중야학 설립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동면 당천리에 대창야학교가 있었다. 사립 개문학교 병설인 대창야학교는 1910년 3월경 설립되었으며, 학생수 20명, 경영자는 강남기, 이종립, 강두영, 장연화 등이었다.³⁴⁾

중남면 신화리 노동야학교는 지역 내 일반노동자들인 김고상 외 20명이 1917년 9월경부터 동리 1칸 초당을 빌려서 야학교를 설립 경영하였다. 김복조(金福祚) 등이 교사를 맡았다.³⁵⁾ 1921년 7월에는 김우상(金佑相), 김인수(金仁秀)외 20여 인이 발기하여 1동의 교실을 신축하여, 사립학교의 허가원을 제출하였다. 학생수는 30여 명이었다.

<표 1>은 1920년대 전반기 울산지역 야학 및 강습소 현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면·중남면·연양면·하상면·하북면·삼동면·상남면·울산읍 등지에 많이 개설되었다. 시기적으로는 1921년 1923년 사이에 교육운동이 활발하였다. 설립 주체는 지역유지, 청년회 등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위주가 되었다.

그러면 울산지역 민중교육 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23년 5월경 중남면에는 노동야학이 도처에 설립되어, 면내 야학회가 8개나 되었다. 노동야학연합회를 조직하여 교사들은 교육 향상의 지식을 교환하였으며 노동학생들은 노동자의 단결을 고취시켰다. 순회강연회도 개최하였다.³⁶⁾ 중남면 노동야학연합회는 서산지방 수재 및 일본 동경대진재지방에 재류하는 우리 동포를 구제하기 위해 간부 일동이 각 부락 노동야학회를 순회 강연하여 동정금을 모집하였다. 야학생뿐만 아니라 유지 심지어 부인들까지 수십전씩 기부하였다. 17원을 모아 기탁하였다. 조선일보 연양지국 수재동정금 기부단체에는 이외에도 중남면 수남리 노동야학회, 중남면 신화리 노동친목회 등이 있다.

1923년 8월에는 노동야학교에서 중남학우회가 창립되었다.³⁷⁾ 회원 자격은 중남면에 거주하는 조선인 남녀 학생들이다. 목적은 건전한 청년을 양성함에 있고, 강령은 지덕 배양, 신체 단련, 사회 공헌 등이다. 중남소년학우회에서는 강령에 따라 면내 마을마다 위생선전 강연과 청소활동을 벌였다.

33) 『동아일보』 1921. 8. 23 ; 『조선일보』 1923. 8. 26 ; 1923. 11. 14.

34) 이훈상, 1987, 「구한말 노동야학 성행과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이병도박사 구순기념 논총』

35) 정연태, 1989, 「경남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 『동아일보』, 1921. 8. 5.

36) 『조선일보』 1923. 5. 23 ; 1923. 9. 24 ; 1925 11. 29.

37) 『조선일보』 1923. 8. 13, 29.

<표 1> 1920년대 전반 울산지역 야학 및 강습소 현황

이름	소재지	창립·관련보도일자
대창야학교	동면당천리	1910년3월
신화리노동야학	중남면신화리	1917년9월
수남리노동야학회	중남면수남리	1923년5월
노농학우회	중남면교동리	1925년12월
동남부노동야학회	언양면읍삼동	192년12월
언양여자야학회	언양보통학교	1923년5월
어음리노동야학회	언양면어음리	1923년12월
흥곡리노동야학회	언양면흥곡리	1923년12월
반곡리노동야학	언양면반곡리	1923년12월
천도교울산청년회노동야학회	울산읍	192년
울산여자야학회	울산읍	192년10월
우정노동야학	울산읍우정동	1925년8월
육교노동야학	울산읍육교동	1924년12월
동화의숙	울산읍	1925년11월
병영노동야학	하상면병영	1922년2월
일산리노동야학회	동면일산리	192년
일산리여자야학회	동면일산리	1924년
진명야학강습회	동면전하리	1923년12월
지내리노동야학부	하북면지내리	1923년12월
궁근정노동야학	하북면궁근정리	1924년2월
유신강습소	하북면궁근정리	1922년봄
진명강습소	삼동면둔기리	1923년5월
낙영의숙	삼동면금곡리	1923년5월
출강리노동야학	삼동면출강리	1923년12월
조일학우회	삼동면조일리	1926년3월
길천리노동야학회	상남면길천리	192년
양정강습소	상남면거리	1922년봄
진명강습소	상남면둔기리	1923년6월
낙영의숙	상남면둔곡리	1923년6월
대정노동야학회	온산면대정리	1925년12월
정자강습소	강동면정자리	1923년11월
보신강습소	두서면구량리	1923년6월
덕하리강습소	청량면덕하리	1923년6월

중남면 교동리에서는 1925년 12월 12일 노농학우회를 창립하여 무산(無産) 아동을 교육하고 가극대회를 개최하였다.³⁸⁾

울산읍내에서는 1921년 천도교청년회 울산지회 주최로 교회 내에 노동야학회를 설립하고 교인 중 2인을 명예교사로 선정하여 조선어·일어·산술·한문 등을 가르쳤다. 학생수는 40명이었다. 1921년 10월 울산부 예수교회당에 울산여자야학회를 설치하였다.³⁹⁾ 1923년 4월초에는 울산공보교 내에 여자야학회가 개설되었다. 학생수는 70여 명이었다.

1923년 5월 정인섭 등의 주도로 연양보통학교 여자부 교실 내에 여자야학이 개설되었다. 연양노동야학생과 여자야학생이 공동으로 운동회를 열기도 했다.⁴⁰⁾ 이외에도 연양면에는 어음리와 흥곡리에 노동야학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었다.⁴¹⁾

하상면 병영노동야학은 교사(校舍)가 협소하여 1922년 2월부터 병영지역 청년의 발기로 병영면 유지의 동정금 1천원을 수합하여 새로 교사를 매입하였다. 이성호 등이 교수를 담당하고, 설립 이래 운영이 잘 되어 학생이 100여 명에 이르렀다. 1924년 봄부터는 노동야학 내에 여자부를 증설하였다.⁴²⁾

동면 일산리 성세빈(成世彬)은 1921년부터 노동자를 모아 교수해오다 인근 유지의 기부를 받아 신 교사를 짓고 아동 100여 명을 가르쳤다. 이외에도 일산리에서는 서○문(徐○文) 등이 보성강습소 내에 여자야학회를 개설하여, 조선어·산술·수공 등을 교육하였는데, 학생수가 40여 명이었다.⁴³⁾ 하북면 지내리에서도 정태관, 정태균 등의 발기로 빈곤이나 입학난으로 보통학교에 진학치 못한 인근 아동 40여 명을 모집하고 또 노동계급에서 배우고자 하는 동포를 위하여 노동야학부를 설치하였다.

삼동면 출강리 유지 차경○(車景○), 정한기(鄭漢基), 정성락(鄭成洛)의 발기로 1923년 12월 중순 노동야학을 신설하여 마을 노동자 30여 명을 모집하였다.⁴⁴⁾ 하북면 궁근정(弓根亭)에서도 노동야학을 설립하고, 교수과목은 조선어·한문·산술·일어 등이다.⁴⁵⁾ 상남면 길천리 노동야학회는 1925년 창립6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는데, 이규천의 취지 설명이 있었다.⁴⁶⁾ 동면 전하리에서는 유찬뢰, 오기환 등이 무산계급 아동들을 위해 동사에 진명야학강습회를 설립하였다. 남녀학생수는 40여 명이었다.⁴⁷⁾

38) 『조선일보』 1925. 12. 29.

39) 『조선일보』 1921. 9. 27 ; 1922. 2. 11 ; 1923. 6. 1.

40) 『조선일보』 1923. 5. 9 ; 1923. 7. 26 ; 1923. 11. 22.

41) 『조선일보』 1923. 12. 12.

42) 『동아일보』 1922. 4. 27 ; 1924. 8. 6.

43) 『동아일보』 1924. 2. 6.

44) 『동아일보』 1924. 1. 4.

45) 『동아일보』 1924. 2. 7.

46) 『조선일보』 1924. 12. 17.

상남면과 하북면 청년들은 1925년 2월 상남면 거리 청년회관 내에서 상하북노동야학회연합회를 조직하고 의장 이규천 사회로 ①기설야학회에 순강하여 노동교육의 근본적 의의를 선포할 사 ②각 동리에 야학회 증설의 건 ③노동자의 생활 향상의 건 ④경성에 개최되는 노동교육자대회 참가의 건 등을 결의하였다. 집행위원은 이규천, 이규장, 정장수, 이규경, 강영상, 김정규 등이다.⁴⁸⁾

울산읍 우정동 농우회(農友會)에서는 동사를 수리하여 1925년 8월부터 야학을 개설하였다. 박재익, 성재룡, 박창수, 차용규, 박근학, 목영식 등이 교수하였다. 취학하는 노동자 및 소년노동자가 40 50명이었다. 옥교동 노동농민으로 조직한 옥교농우회에서도 1924년 12월부터 노동야학을 경영하였다. 김소룡, 오흥호 등이 교수하고, 1·2학년 생도가 30여 명이다.⁴⁹⁾ 온산면 대정리에서는 황덕행과 김화여의 발기로 대정노동야학회를 설립하고, 교실 협소하자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였다.⁵⁰⁾

삼동면 조일리에서는 1926년 3월 7일 정재순(鄭在順) 등 수십의 학우가 모여 조일학우회를 창립하였다. 창립총회에서 정기복(鄭起福) 사회 하에 ①우애성을 양성의 건, ②남선이나 혹은 연양·울산축구대회 개최의 건 등을 결의하였다. 임원은 회장 정기복, 부회장 김무길, 총무 김종달, 외무부 정재우, 내무부 신갑문, 재무부 김갑수 등이다.⁵¹⁾

이처럼 정규 교육시설의 미비를 메우기 위해 울산지역에서는 지역유지와 사회운동단체 등에 의해 노동야학 등이 활발히 설립되었다. 그 결과 1929년 1월 신간회 울산지회에서 준비하던 울산노동야학연합회의 창립대회 참가대상에 해당하는 울산지역 야학의 수가 100여 개에 이르렀다.⁵²⁾

강동면 정자강습소는 창립 이래 회장 김용건(金容健) 외 임원들의 노력으로 점차 확충되었다. 아동수가 140명에 달하여 설비가 부족하자 학부형들이 찬조금을 모아 운동장과 교수재료를 구입하였다. 설립자는 김용건, 회장 박동○, 부회장 김성하, 회감 김봉오, 회계 김성곤, 학감 최일출 등이다. 1926년 현재 졸업생수는 50여 명이다.⁵³⁾

하북면 석남사는 울산고등강습소를 경영하여 일년 지출이 수입의 반 이상에 달하였다. 1922년 봄에 설립된 하북면 궁근정리의 유신강습소 교사가 없음을 알고 사찰

47) 『조선일보』 1924. 12. 2.

48) 『조선일보』 1925. 2. 18.

49) 『조선일보』 1925. 11. 9 ; 1925. 12. 6.

50) 『조선일보』 1925. 12. 19.

51) 『조선일보』 1926. 3. 12.

52) 『동아일보』 1929. 1. 2 ; 1929. 2. 19 ; 『조선일보』 1929. 1. 30.

53) 『동아일보』 1923. 12. 1 ; 『조선일보』 1929. 3. 10.

공회를 열어 교사건축비와 재목 전부를 담당 하였다.⁵⁴⁾ 1923년 5월 울산 불교포교당 내에 고등강습소 설치하여 초등학교 졸업생을 모집하였다. 교육내용은 실업학교 2년 정도의 과정으로 농과와 상과를 두었다. 1923년 6월에는 두서면 구량리에 있는 보신강습소, 상남면 거리 양정학원, 상남면 둔기리 진명강습소, 상남면 금곡리 낙영의숙 등의 사립강습소에서 대운동회를 열었다.⁵⁵⁾

울산읍내 안태노와 허준해는 무산 아동의 교양을 위하여 자체의 경제적 고초를 무릅쓰고 동화의숙의 주학 및 야학을 만 1년간 운영하던 중 신축교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찬조금을 모집하였다.⁵⁶⁾

1925년 10월 24일 울산 해영학원의 주도하에 사립학교 연합대운동회를 기회로 12개소 사학의 교원 및 경영자들이 모여 교육민중화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 사학회를 발기하였다. 이들은 교수법 통일, 교원강습회 개최, 아동보건, 순회강연 개최 등을 결의하였다. 임원간사는 박병호, 양봉근, 손정수, 이규장, 김병한, 양대응 등이다.⁵⁷⁾

이처럼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과 교육시설의 미비에 맞서 울산지역의 뜻 있는 유지와 사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설립된 강습소·야학 등은 조선인 자녀의 계몽과 민족의식의 함양에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이후 일제는 자국 내의 만성적인 쌀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의 농업개발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1910년대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1912년 1918년),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1920년 1934년)은 이러한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농업정책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이 식민지 지주제의 법률적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산미증식계획은 식민지 지주제를 중심축으로 하여 식량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농업개발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실시 결과 조선에 식민지 지주제가 형성 발전되었으며, 일제는 이 제도를 매개로 농업을 개발하고 농민을 수탈하고 농촌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쳐나갔다.

산미증식계획의 중심이 된 토지개량 사업의 내용은 수리사업과 지목변환, 그리고 미간지 개척이었다. 이것은 주로 수리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했다.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은 바로 수리조합의 확충계획이라고도 일컬어졌다. 즉 수리조합사업은 산미증식

54) 『조선일보』 1923. 5. 9 ; 『동아일보』, 1924. 2. 6.

55) 『조선일보』 1923. 6. 6.

56) 『조선일보』 1925. 11. 8.

57) 『조선일보』 1925. 11. 6.

계획의 중심 사업으로서 1920년 1930년대 초반 일제 식민지 농업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수리조합은 대부분 식민지권력과 소수 대지주의 주도 아래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농민층의 광범한 몰락과 파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수리조합 문제가 전형적으로 발생한 곳 중 하나가 울산지역이다. 이리하여 울산과 언양의 농민들은 수리조합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들은 수리조합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총독부 당국에까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극렬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수리조합은 총독부 당국의 지원아래 강행되었고, 농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되었다. 수리조합 반대운동은 1930년대에도 계속되었으나 관계자료가 부족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일제하 식민교육정책은 시종일관 동화주의를 지향하였다. 조선인에게 제국신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주입시키는 것이 조선교육의 목표였다. 그러나 동시에 철저한 민족차별이 전제되고 있었다. 일제는 고급의 지식이나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육성하는 일보다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한 보통교육과 저급한 직업인 양성을 위한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교육방침 하에서 강조된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은 본질적으로 수탈을 위한 개발의 일환이었다.

또한 일제하 1910년대 6면 1교제에서 1930년대 1면 1교제로 바뀌어갔지만, 교육인구에 비해 교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하여 취학아동의 취학률도 25%를 넘은 적이 없었으며, 더욱이 농촌의 취학률은 형편없이 낮았다.

이러한 민족차별적 교육정책과 정규 학교시설의 부족은 울산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20년대 울산지역 사회운동단체들과 계몽적 지식인 그리고 농민들까지 적극적으로 야학·강습소·사립학교 등의 비정규적인 민중교육활동에 나섰다. 이 교육운동은 암울하던 일제치하에서의 민족운동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강재순, 부경대학교 사학과 강사>

제2절 울산의 민족운동과 3·1운동

3·1운동은 1910년대 일제의 혹독한 무단통치에 저항하여 자주독립을 위해 전 민족이 분연히 떨쳐 일어선 항일 독립운동이다. 이것은 이전부터 축적된 민족운동의 이념과 경험이 하나로 결집해서 폭발한 것이며, 동시에 이후에 전개되는 민족운동의 분기점이기도 하였다.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사에서 나타나는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의 다양한 갈래는 바로 3·1운동 과정에서 배태된 것이다. 3·1운동은 극히 일부의 친일세력을 제외한 온 겨레가 일제에 항거한 민족해방운동이었으며, 민중의 의식을 크게 각성시켜 그들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로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민중을 중심으로 한 항일투쟁은 물론 국외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1910년대 울산출신 박상진이 사령관이었던 대한광복회로 대표되어지는 경상도지역의 비밀결사운동과 울산지역 3·1운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1910년대 비밀결사운동과 대한광복회

1910년 국권 상실로 말미암아 한말 의병전쟁계열이나 계몽운동계열의 독립운동은 활동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따라서 일제 무단통치에 대항하는 투쟁 방략의 전환은 불가피했다. 즉 1910년대 독립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로 인해 지하로 잠적하거나 국외로 망명하여 새로운 항일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저항의 한 형태로서 비밀결사조직인 독립운동단체는 1910년대 국민적 저항정신을 기반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1910년대에 들어서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이나 그 지원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던 것은 한말 계몽운동의 실력양성운동 노선의 한계와 무장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 시기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비밀결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당면한 지하활동과 테러전술, 해외와 국내 회원간의 연락을 위한 초보적인 조직을 갖추는데 그쳤고, 무장조직·봉기조직으로 발전하거나 대중적 힘을 끌어들이는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비밀결사운동은 1918년 대한광복회 검거를 끝으로 모두 와해되어 버렸다. 그러

나 이러한 조직활동의 경험은 3·1운동 당시 전국에 걸쳐 대중운동을 지도한 비밀결사조직의 모체가 되어 3·1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단체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지역은 경상도였다.¹⁾ 이 시기 경상도지방의 독립운동단체로는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 달성친목회(達城親睦會),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 민단조합(民團組合),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등이 있었다. 풍기광복단, 민단조합, 대한광복회는 의병전쟁 계열의 독립운동단체였고, 대동청년단, 조선국권회복단 등은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독립운동단체였다.

대동청년단은 1909년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로 1910년대와 1920년대에 걸쳐 국외의 독립운동세력을 지원했던 비밀결사였다. 대동청년단은 독립운동의 방략을 국내 운동에 두고 군자금 조달과 인재 육성, 그리고 국내외 연락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우선 그 조직을 보면 단명(團名)이나 단(團)에 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지 말라’ 하여 전형적인 비밀결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동청년단의 구성원은 안희제, 서상일, 이원식, 남형우 등 경상도출신의 계몽지식인이 중심이 되었고, 일부 단원 중에는 신민회·교남교육회·달성친목회·조선국권회복단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동청년단의 활동 중 인재 육성은 국내외의 독립운동세력이 독립운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추구했던 인적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했다. 기미육영회(己未育英會)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여 국권 회복의 동량이 될 인재를 육성하였다.

한편 대동청년단은 일제의 집요한 사찰을 피하기 위해 동래의 백산상회(白山商會)를 중심으로 한 상업조직을 활동거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상업조직은 조선국권회복단의 상업조직과 함께 전국에 걸쳐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국내외의 연락을 통해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여 만주의 항일독립운동 단체를 비롯하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달성친목회는 1908년 9월 대구에서 이근우·김용선 등의 계몽지식인에 의해 결성되었다. 달성친목회는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친목회를 표방하며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대로 들어가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의 성격까지 띠게 되었다. 따라서 달성친목회는 1913년 서상일이 재흥하면서 계몽운동단체가 독립운동단체로 이행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풍기광복단은 1913년 정월 채기중이 주도하여 유창순, 유장렬, 한훈, 정진화, 김상

1) 권대웅, 1993, 「1910년대 경상도지방의 독립운동단체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오 등 경상도 북부와 충청도 출신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그 중 유장렬과 한훈은 민종식의진(閔宗植義陣)에 참여했었고, 강순필도 이강년의진(李康年義陣)에 참가한 경력으로 보아 풍기광복단은 의병운동의 기반 위에 평민출신이 많이 참여하였다. 풍기광복단의 목적은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기 구입과 군자금의 모집이었다. 이를 위해 채기중이 강병수와 함께 자금 탈취를 계획하여 강원도 영월의 일본인이 경영하는 중석광산에 잠입하여 활동했으며, 부호를 대상으로 자금수집 활동을 하였다.²⁾

민단조합은 1914년 9월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밀결사로 의병전쟁 계열의 인사들이 조직하였다. 즉 한말 이강년의병의 잔여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군의 모집과 군자금의 모집을 목표로 활동한 것이다. 거기다 풍기광복단과 충청·전라도를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독립의군부의 활동을 계승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1918년 민단조합사건이 노출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조합원과 관련자는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이동하·이은영·김락문 등 의병출신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양반유생의 토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보면 소백산 이남 낙동강 연변의 경북 북부지역인 안동·예천·문경·상주 등지의 인사들이었다.

1915년 정월 결성된 조선국권회복단은 달성친목회를 기반으로 조직되었다. 조선국권회복단은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도 일원의 인사들이 조직하고 참여한 단체로서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 및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해외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³⁾ 조선국권회복단은 중앙 총부와 마산지부를 설치하여 대동청년단과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도 양 단체에 모두 소속되어 있으며, 활동상황도 서로 착종(錯綜)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양 단체가 제휴하거나, 대동청년단의 표면적인 활동조직 내지 전위조직으로서 국권회복단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구성원의 인적 구성은 대구를 중심으로 부호 또는 중산층, 계몽주의적인 인물, 신학문 이수자, 유생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서상일·이시영·박영모·홍주일·안확 등 계몽지식인이 주도세력이었다. 활동거점은 상업조직과 회원들의 사가(私家)가 많이 이용되었다. 조선국권회복단은 해외 독립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군자금의 모집과 독립군에 보내기 위한 청장년의 모집에 힘을 썼다. 이러한 활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대구권총사건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동청년단과 연계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고, 3·1운동을 지방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조동걸, 1982,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선행조직」, 『한국학논총』 5.

3) 강영심, 1990, 「조선국권회복단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박상진 의사 생가

공화주의를 표방하며 장기적 전망에서 독립군 양성을 목적에 두고 군자금 모집과 무기 구입, 친일부호를 습격 차단하는 비밀결사도 등장하였다. 1915년 7월 대구에서 결성된 대한광복회는 당시 활동했던 단체들 가운데 가장 전투적이었다.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을 발전적으로 통합한 대한광복회는 처음에는 경상도 일대에서 조직되었으나, 1916년부터는 충청도·경기도·강원도·황해도·전라도·평안도 등지로 확대되어 전

국적으로 2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이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하였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혁명과 중국 신해혁명의 교훈을 강조하여 국권 회복과 공화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내 100여 곳에 거점을 확보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한편 간도 등 우리 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외국 땅에 무관학교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군자금을 수합하였다. 대한광복회는 또 상동광산, 직산광산, 경주의 우편차 등을 습격하여 군자금을 모았고, 친일부호로 지목된 장승원, 박용하 등을 처단하였다.⁴⁾

1918년 대한광복회의 조직이 일제경찰에 발각되어 거의 궤멸당하였다. 잔존회원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암살단, 주비단(籌備團) 등을 결성하고, 후에 의열단(義烈團)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대한광복회는 이념적, 전략적 측면에서 1910년대 항일 민족운동의 새로운 지향과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척사적 보황주의(保皇主義)의 청산과 공화주의의 등장은 이 시기 민족운동의 이념적 성장도를 가늠하는 것이었다.⁵⁾

대한광복회 결성을 주도한 인물은 박상진(朴尙鎭)이다. 본관은 밀양, 자는 기백(璣伯), 호는 고현(固軒)으로 규장각 부제학(副提學) 박시규(朴時奎)의 장남이다. 1884년 울산 송정동(松亭洞)에서 태어나 곧 경주군 외동면 녹동리로 이사하였다. 박상진의 가문은 대지주이며 대대로 문한(文翰)을 배출한 유학자 집안이었다. 그는 16세까지 경주 녹동에서 한학을 수업하고, 1902년 당시 19세에는 허위(許蔭)의 문하에서 배웠다. 1907~1910년까지 양정의숙(養正義塾)에서 법률과 경제 등 신학문을 전공하였다. 1910년 판사시험에 합격하여 평양법원에 발령 받았으나 사퇴하고 만주로

4) 조동걸, 1983, 「대한광복회연구」, 『한국사연구』 42 ; 박영석, 1986, 「대한광복회연구-박상진 제문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5) 이지원, 1994, 「3·1운동」, 『한국사』 15, 한길사.

건너갔다.

1911년 만주를 여행하면서 중국의 혁명 상황을 보고 다수의 지사(志士)들을 상면한 뒤 입국하였다. 그가 여행한 곳은 남만주로서 당시 경북 각처에서 민족지사들이 모여든 신한촌 일대였다. 이곳에서 박상진은 허겸(許兼), 손일민(孫一民), 김대락(金大洛), 이상룡(李相龍), 김동삼(金東三) 외에도 의병전쟁 계열의 양제안(梁濟安), 우재룡(禹在龍), 권영만(權寧萬), 조용필(趙鏞弼), 계몽운동 계열의 서상일(徐相日), 안희제(安熙濟) 등을 만났다.⁶⁾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등의 국제상황은 독립운동을 크게 자극하였다. 특히 청조(淸朝)를 종식시키고 공화주의에 입각한 중화민국을 탄생시킨 신해혁명은 박상진을 비롯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에서의 독립군기지 건설은 국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였다.

박상진은 1912년 귀국하여 대구에 곡물을 취급하는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를 설립하였다. 그는 평소 서상일, 최준 등과 인적관계를 맺어오고 있었고, 더욱이 대구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진원지로서 부호, 개명인사,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적극 참여하였던 곳이기도 하여 일찍부터 국권회복에 대한 열망이 큰 곳이었다. 상회의 명칭은 울산출신의 박상진과 평양의 김덕태, 전주의 오창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며, 박상진은 상덕태상회에 자본금 24만원 중 10만원을 출자하였다. 박상진은 상덕태상회를 경영하면서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과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의 관련 인사들과 교유를 확대하여 활동기반을 조성하였다.

박상진은 1915년 음력 1월 15일 대구에서 결성된 조선국권회복단의 주도적인 인물로 참가하였다. 이미 박상진은 상덕태상회를 설립하여 군자금 모집을 위한 거점으로 삼고 만주를 왕래하고 있었다. 조선국권회복단은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도지방 일원의 인사들이 조직하고 참여한 단체로서 만주 등 해외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군자금의 모집, 국내외의 비밀연락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국권회복단의 조직과 인적구성은 횡적으로는 대한광복회와 대동청년단, 종적으로는 한말의 달성친목회 등의 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이들은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조직을 배경으로 국내외를 연결하는 활동을 전개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1915년 7월 15일 대한광복회를 결성하였다. 사령관은 박상진이었다. 대한광복회는 경상도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각도

6) 울산역사교사모임, 1997, 『다같이 돌아 울산 한바퀴』, 도서출판 처용.

및 서간도와 북간도에까지 그 조직망을 확대하였다. 대한광복회의 조직 확산에 특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사는 박상진, 채기중(蔡基中), 우재룡 등이다.

대한광복회가 결성되는 1915년은 대외정세가 매우 급전되는 시기였다.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산둥반도 출병에 따른 양국의 개전설(開戰說), 그리고 1915년 초 일본의 21개조 요구와 원세개의 매국적인 승인 등으로 중국 국민의 대일 개전설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기관으로서 대한광복회의 설립은 일제의 무단통치로부터 무력투쟁을 통한 독립의 쟁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혁명은 군사행동을 전제로 한 일제의 구축이었고, 이것은 세계 각국의 혁명이나 중국의 신해혁명의 교훈에 따른 공화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혁명이었다. 대한광복회의 성격은 박상진의 비밀·폭동·암살·명령이라는 4대 강령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대한광복회의 실천사항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 ① 무력준비 : 일반부호의 의연(義捐)과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해 이로써 무장을 준비함.
- ② 무관양성 : 남북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인재를 교양해 사관을 채용함.
- ③ 군인양성 : 우리대한의의병·해산군인및남북한이주민을소집해훈련, 채용함.
- ④ 무기구입 : 중국과 노국에 의뢰해 구입함.
- ⑤ 기관설치 : 대한·만주·북경·상해 등 요처에 기관을 설치하되, 대구 상덕태 상회에 본점을 두고 각지에 지점 및 여관 또는 광무소(鑛務所)를 두어 광복회의 군사행동·집회·왕래 등 모든 연락기관으로 함.
- ⑥ 행형부 : 일본인고등관과우리한인반역분자는수시수처(隨時隨處) 포살을행함.
- ⑦ 무력전 : 무력이 완비되는대로 일본인 살육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완성을 기함.

이와 같은 실천사항에 따라 대한광복회는 군자금의 모집, 사관과 군인으로 구성된 독립군의 양성, 무기구입, 활동조직의 설치, 친일부호의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광복회는 그 조직망을 확충하고 무력투쟁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박상진의 주도하에 추진하였다.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 국권회복을 표방한 비밀결사 형태의 독립운동단체는 그 활동거점으로 상업조직을 이용하고 있었다. 대한광복회가 활동거점으로 삼았던 상업조직은 대구의 상덕태상회를 근거로 영주의 대동상점을 비롯하여 삼척·광주·예산·연기·인천·용천 등의 국내 거점과 만주 안동의 삼달양행, 장춘의 상원양행 등

국외거점이 있었다.

각지에 상업조직을 설치하던 대한광복회는 우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군자금의 모집이라고 생각하여 실행에 옮겼다. 처음 대한광복회를 결성한 박상진은 우선 자신의 재산부터 헌납하여 설립한 상덕태상회를 통해 독립운동자금을 지속적으로 마련코자하였다. 그러나 “국내 요지에 1개소 1만원의 자본으로 표면상의 잡화점을 100개소 개업하여 그 이익으로 국권회복의 자금을 마련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준비를 마친다”는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부호들의 의연금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진은 자산가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먼저 부호 1명을 암살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경각심을 주고자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실행에 옮겨진 것이 칠곡의 장승원 암살사건과 충남 아산군의 도고면장 박용하 암살사건이다.

한편 1915년 11월 17일 경주 광명리에서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여 마차로 운송하던 경주·영일·영덕 등 3개군의 세금 8,700원을 우재룡과 권영만이 습격하여 탈취하였다. 이러한 대한광복회의 활동은 1918년 1월 27일 천안군 성환에서 장두환이 체포됨에 따라 그의 전모가 노출되고 말았다. 박상진은 1916년 7월 남경에 도착하여 손문을 방문하고, 1918년 1월 27일 이종국이 천안경찰서에 밀고하여 조직이 전모가 드러나자 귀향하였다가 체포되어 1921년 8월 11일 대구감옥에서 38세의 일기로 교수형을 당하였다. 박상진에게는 1963년에 국민장이 수여되었다.

박상진 체포 이후 박상진가는 급격히 몰락하였다. 원래 박상진가는 당시 시가로 67만원에 해당하는 99두락의 농토를 소유한 지주집안이었다. 박상진은 상덕태상회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생부 박시규와 상의도 없이 미쓰이회사에 이 땅을 담보로 이미 10만원을 빌린 처지였다. 더구나 박상진이 군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겨 둔 사촌처남 최준은 그가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자 그와의 연루를 피하기 위해 맡긴 재산을 모두 자신이 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박상진이 사형을 당한 후 재산은 모두 최준의 소유가 되었고, 따라서 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2. 울산지역의 3·1운동

경남지방에서는 3월 3일 부산과 마산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서울의 시위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위가 불붙기 시작하였다. 부산에서는 3월 11일 기독교계 일신여

학교 학생들과 기독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경남지방 최초로 3·1운동의 횃불을 치켜 세웠다. 이후 3월 3일에는 동래·창령·밀양, 3월14일에는 의령, 3월 17일에는 함안, 3월 8일에는 합천·진주·통영·하동으로 시위가 확산되어 갔다. 반면 창원·양산·함양·김해에서는 3월 하순에 시위가 개시되었고, 울산·남해에서는 4월 상순에 비로소 시위가 일어났다.

이처럼 경남지방의 3·1운동은 도내 21개 부·군에 걸쳐 매우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퍼져나갔다. 이 같은 시위의 열기는 3월 18일 19일과 4월 2일 4일 경에 절정에 달했다. 4월 중순 이후 일제의 병력 증강 배치로 탄압의 강도가 더함에 따라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4월말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경남지역의 3·1운동은 비록 충북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뒤늦은 시기에 점화되었지만,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완강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⁷⁾

울산지역의 3·1운동은 4월 2일 8일까지 총 4회에 거쳐 언양·병영·남창 등에서 일어났다. 울산은 1910년대 항일운동단체 중 가장 세력이 큰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세운 사립학교가 4개(196명), 서당수가 106개(956명)로 민족교육의 열기가 대단한 곳이었다. 이러한 민족교육은 식민지 민중의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 민중야학의 실태를 보아도 이미 1910년대에 동면 당천리 대창야학교, 중남면 신화리 노동야학 등이 설립되어, 진보적 이념과 민족교육을 표방하고 있었다.

한편 병영에서는 비밀청년회 등의 소규모 지역별 비밀결사가 결성되어 지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3·1운동 이전 시기에 청년회가 조직되어, 3·1항쟁을 주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 여기서는 울산지역 3·1운동을 지역별로 살펴보기로 한다.⁸⁾

1) 언양의거

울산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4월 2일 언양에서 시작되었다.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난 후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의 함성과 저항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번져갔다. 4월에 들어가서는 지방 농촌 곳곳으로 번져갔다. 3월 30일 울산군청 명의로 ‘면리원(面吏員)은 차제에 전원 사직하라’는 격문이 각 면에 속달되어 이들

7) 정연태, 1989, 「경남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8) 울산지역의 3·1운동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삼일동지회, 1979, 『부산경남삼일운동사』, 사단법인삼일동지회 ; 이춘걸, 1998, 『정사 울산 3·1운동』, 처용기획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자료집』,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 울산보훈지청, 1998, 『우리고장 3·1독립운동』.

은 공포에 떨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민족독립을 요구하는 함성과 저항이 높아가고 있던 3월 하순 상남면에 서도 천도교 계통의 인사를 중심으로 봉기 준비는 무르익어 갔다. 이들은 사전에 서울의 천도교 본부와 연락을 취해 민족대표 진영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시위를 조직한 것이다. 이처럼 언양의 시위는 천도교인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다.

상북면 거리(巨里)에는 천도교 울산교구가 설립되어 있었다. 1919년 2월 당시 교구장이었던 김교경(金敎慶)은 고종 임금의 인산에 참례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면서 천도교의 비밀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과 국민회보를 등사하여 울산교구로 보냈다. 3월에는 상경한 교인 이규장(李圭章)에게 필사한 독립선언서를 전해주며 거사 준비를 서두르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천도교 교인인 최해규, 이규장, 이규천, 곽해진, 유철순 등이 유림대표 이무종(李武鍾), 이규인(李圭寅), 김향수 등과 협의하여 거사를 결의하였다.⁹⁾ 상남면 길천리(吉川里)에 사는 이무종, 이규인, 이성영(李成榮), 강경찬(姜庚贊), 최해선(崔海璿), 이규경(李圭庚) 등은 의거를 모의하면서 유지들을 비밀리에 규합해 갔다. 이들은 거사일자를 4월 2일 언양장날로 정하였다.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는 상남면 천도교회에서 철야 등사되어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다.

그런데 의거일을 이틀 앞두고 천도교도인 최해규(崔海圭), 최해식(崔海軾)형제와 곽해진(郭海鎭), 유철순(兪哲淳) 등이 예비 검속(檢束)되었다. 최해규는 천도교 울산교구장 출신이다. 이 소문이 읍내에 전파되자 이들 주모인사는 사전에 발각된 것이 아닌가 염려하여 예정한 날의 거사를 주저하였다.¹⁰⁾

이에 배후에서 지도하던 김성진(金聲振) 노인은 ‘국가의 존망이 이 일거에 달렸는데 어찌 망설일 수 있으랴 위국일사(爲國一事)는 천추에 부끄럽지 않다 하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용기를 얻은 주동인사인 이무종, 이규인, 이성영, 강경찬, 최해선, 이규경 등은 4월 1일 밤 상남면 길천리 이규인 소유의 빈집에 모여 내일로 박두한 의거를 논의하면서 밤을 세워가며 많은 태극기를 만들었다. 다음날 예정한 의거일인 언양장날은 닥쳐왔다. 이에 앞서 전날인 4월 1일 인근 양산읍(梁山邑)에서 수천명의 군중시위가 있었다는 소식이 언양지역에도 전해져, 이곳 농민들의 저항심은 어느 때보다도 앙양되어 있었다.

9) 천도교 언양교구, 1995, 『언양 3·1독립운동』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3·1운동사 자료집』 제5집.



언양 3·1운동 기념비

이들 주동인물들은 밤새 만든 태극기를 비밀리에 간직하고 이른 아침 언양 남부리(南部里) 장터로 나아갔다. 남부리 장날에는 울산군 내 상남·중남·삼동·두동·두서의 각 면과 양산 하북면 등지로부터 수 많은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일제경찰은 만일을 경계하여 읍내 요소요소에 수비를 삼엄하게 하면서 이전부터 요시찰인으로 지목하던 수남부락의 정병한(鄭炳漢)을 주재소로 구인해 갔다. 사태가 긴박했음을 직감한 김성진 노인

은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선창하였다.

이 때 이규인이 ‘대한독립만세’라고 크게 쓴 선봉기를 높이 쳐들자 군중들은 일제히 호응하여 만세를 불렀고, 김만출(金晩出) 등 많은 청년동지들은 미리 준비했던 태극기를 군중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태극기를 받아들인 군중들은 의기충천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더욱 높이 외치며 읍내로 쏟아져 나왔다. 그 수가 무려 2,000여 명이었다. 만세의 함성은 천지를 진동하고 시장은 삼시간에 감격과 흥분으로 휩싸였다.

이에 당황한 일군경이 군중을 해산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위군중의 의기는 꺾이지 않았다. 시위대열이 일사불란하게 보부당당한 행진을 계속하자 포악무도한 일군경은 끝내 군중에게 실탄사격을 퍼부었다. 이어 일제경찰은 주동인물 몇 명을 언양주재소로 연행하였다. 그러자 분노한 시위군중들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만세를 외치면서 주재소로 쇄도해 갔다. 놀란 일제군경이 공포를 발사하자 군중들은 일제히 이들에게 투석세례를 가하였다. 드디어 군중이 달려들어 순사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육박전을 벌이자 일군 수비병은 시위 군중에게 총탄 세례를 가하였다. 성명 미상의 청년 1명과 손립분(孫粒粉)여사가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곽해진의 모친을 비롯하여 기생 초운과 김종환(金鍾煥), 정달조(鄭達祚), 성명 미상의 남자 1명 등 남녀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¹¹⁾

시위 군중이 흩어지자 일제군경은 주동인물 검거에 나섰다. 이리하여 이곳 의거에서는 48명의 애국인사들이 검거되어 재판받았다. 주동인물들은 대부분 6개월 내지 1년형의 징역 연도를 받아 부산, 대구형무소에서 투옥되었다.¹²⁾

11) 울산지역 3·1운동의 전개상황과 주도자들의 재판진행과 수형량 등에 대해서는 이춘걸의 『정사 울산의 3·1운동』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언양 봉기 이후 중남면 마산리 출신의 동래고보 학생이던 김원룡은 고향인 언양에 돌아와서 청년동지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고 거사에 참여토록 활동하다가 동래 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8개월의 옥고를 겪은 후 출옥하여 다시 항일투쟁을 기도하였다.

언양지역 3·1운동을 주도하였던 인물들은 이후 1920년대에도 민족해방운동과 지역사회운동에 헌신하였다. 이규장은 재봉기를 계획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후 상북면에서 천도교 회관을 이용하여 양정학교(養正學校)를 설립해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는 1925년 상남하북 노동야학회연합회 집행위원, 울산사학회 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곽해진은 1925년 중남소년단 회관 찬성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규경은 1925년 상남하북 노동야학회연합회 집행위원, 신간회 울산지회, 1931년 언양수리조합 반대위원, 김만출은 1925년 울산군청년연맹 창립 당시 검사위원, 김원룡은 언양청년회에서 활동하였다.

현재 언양지역에는 3·1운동 유공비가 2기 세워져 있다. 하나는 상북면 경의고등학교 교정에, 다른 하나는 언양 작천정 입구에 있다.

2) 병영의거

하상면(下廂面) 병영리(兵營里)는 조선시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영(兵馬節度使營)이 있던 곳으로 이곳 주민들은 옛부터 애국적인 상무정신(尙武精神)이 강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이곳 청년들은 이러한 전통적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항일정신이 어느 곳보다도 강하였다. 이러한 청년들의 결속단체로 비밀결사인 병영청년회(兵營靑年會)가 조직되어 있었다.¹³⁾

1919년 3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던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소식은 서울에 유학하다가 귀향한 한명조(韓命祚)와 이영호(李永浩) 등을 통하여 3월 3일 전해들었다. 4월 1일에 양산읍에서 봉기하고, 4월 2일에는 언양읍에서 봉기한 소식이 이곳 애국청년들에게 전해졌다. 이처럼 4월에 접어들면서 여러 군과 면에서 일어나는 항일 독립의거는 드디어 이곳 청년들을 항일의거의 대열로 뛰어 들게 하였다.

당시 병영청년회 간부인 이현우(李鉉禹), 이종욱(李鐘旭), 이문조(李文祚), 박영하(朴永夏), 이종근(李鍾根), 양석룡(梁錫龍), 김장수(金長壽) 등은 하상면 서리(西里)

12) 경상남도경찰부, 1936, 『고등경찰관계적록』, 13쪽.

13) 경상남도경찰부, 1936, 앞의 책, 14쪽.

박영하의 집과 이종근의 집에서 모의를 거둬들인 후 의거일을 이문조의 제의로 4월 4일 병영장날로 정하였다.¹⁴⁾ 이들은 우선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심동체의 혈맹(血盟)이 선행되어야한다는 결의 아래 ‘결사보국’을 혈서(血書)로 맹세하였다.

문성초와 김응룡의 자금 지원으로 4월 3일 이들은 의거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이종근의 집에서 비밀 모임을 가진 후 박영하 집에서 비밀리에 독립선언서 인쇄와 태극기 제작에 착수하는 한편 일부는 같은 마을 권작지(權作支)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의논 끝에 독립선언서 인쇄를 위하여 이종협(李鍾俠)에게 야간을 이용하여 하상면사무소의 등사판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 약 200매를 등사였다. 태극기는 양석룡, 이종룡(李鍾龍) 책임 아래 약 500매를 작성하였다. 이들은 작은 태극기와 아울러 각각 종지와 명주로 ‘구대한민국독립만세(舊大韓國獨立萬歲),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라고 크게 쓴 깃발도 만들었다.

4월 4일 거사일이 닥쳐왔다. 그 날 오전 9시경 청년회 회원들이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병영 일신학교(현 병영초등학교) 교정으로 모여들었다. 청년회 회원들은 일신학교 학생들을 합세하게 한 후 오전 11시경 양석룡이 축구공을 높이 차올리는 것을 신호로 모두가 준비한 태극기를 꺼내들고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이어서 청년학생들은 주동인물을 선두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서리(西里)·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산전리(山田里)를 돌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성내 주민들은 너도나도 호응하여 독립만세의 우렁찬 함성은 천지를 진동케 하였다. 삽시간에 시위군중은 수백명이 되었다.

이곳 일제 경찰관 주재소의 연락을 받고 울산 경찰서장 이하 8명의 경찰과 일군 수비대 5명이 달려왔다. 이들의 무자비한 탄압에 분노한 시위군중은 이들과 육박전을 벌였다. 양석룡은 이들에 의해 무수히 구타를 당한 끝에 검거되고, 선두에서 활약하던 이종욱, 이종룡 등 10여 명도 검거되었다. 이날 검거된 14명은 울산 본서로 구인되었다. 시위군중은 휘두르는 일군의 총검앞에 더 이상 시위를 계속할 수 없어 해산하였다.

거사가 중도에서 좌절된 것을 분하게 여긴 이문조, 이종필(李鍾弼), 이종근 등은 남외동 광남부락 김세진(金世鎭)의 집에 피신하여 다음날의 재기를 계획하면서 문성초(文星超), 윤학이(尹學伊), 최현구(崔鉉久), 황정달(黃丁達), 백봉근(白鳳根) 등 동지에게 연락하여 거사를 준비케 하였다. 4월 5일 이른 아침에 문성초, 윤학이의 연

1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앞의 책.

락으로 이종필, 최현구, 김장수, 황정달, 백봉근, 이문조 등이 다시 일신학교 부근에 모여 오후 3시에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플래카드를 이문조가 들고 전원이 만세를 부르며 큰길과 성둑으로 행진하다가 그곳 주재소로 쇄도해 갔다.

이 날 시위는 전일의 거사가 널리 알려져 의분에 넘친 군중들이 아침부터 일신학교 부근으로 몰려들어 시위군중은 수천명에 달하였다. 이처럼 병영의 시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일신학교의 교사와 학생 등이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울산으로부터 많은 일군경이 그곳 주재소로 달려와 이들과 시위군중 사이에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문조 등 9명이 일군경에 검거되었다. 이에 시위군중들은 일경들을 포위하여 검거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하였다. 군중의 함성이 충천해 가는 중에 엄준(嚴俊)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군 수비병의 총기와 일제경찰의 칼을 탈취하려고 육박전을 벌였다. 그러자 일군 수비병이 군중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엄준, 문성초, 주사문(周士文), 김응룡(金應龍)이 그 자리에서 순국하고, 송근찬(宋根讚), 김규식(金圭植), 김두갑(金斗甲) 등 많은 애국군중이 중경상으로 쓰러졌다.

그 후 이 의거에 활약한 애국인사들 40명이 검거되어 그들의 대부분은 재판 결과 6개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을 받아 부산, 대구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이들은 옥고를 겪고 출옥한 후 복역자 전원이 곧 기미계를 조직하여 조국이 광복될 때까지 항일투쟁을 계속할 것을 서로 맹세하였고, 또 이러한 정신 아래 일제통치기간 중에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순국자들을 봉제하여 왔다. 현재 병영 삼일사에서는 병영지역 3·1운동 애국투사들을 모시고 추모하고 있다.

병영 3·1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은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종욱은 강습소를 설치하여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문조는 병영청년회와 신간회 울산지회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이종근은 1927년 울산수리조합 반대위원, 양석룡, 김장수, 최현표는 병영청년회, 이종룡은 병영청년회와 울산군청년연맹 집행위원, 이종필은 1927년 울산수리조합 반대위원과 신간회 울산지회 준비위원으로 활약하였다.

3) 남창의거

온양면(溫陽面) 신밤리(南倉)는 옛날 신야탄(新夜灘)이라고도 하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남면에 진을 치고 기장 방면으로부터 오는 적을 막아왔던 우리 의병들이 이곳

에서 왜적을 맞아 크게 무찌른 민족 저항의 전통 어린 고장이기도 하다.

웅촌면(熊村面) 석천리(石川里)에 살고 있던 이재락(李在洛)은 고종황제의 인산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였다가 서울에서 3·1운동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때 신밤리에 사는 이수일(李樹一)은 고종황제의 인산 소식을 듣기 위해 서울에서 귀향한 이재락을 찾아갔다가 독립만세 시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울러 독립선언서도 보게 되었다. 이수일은 신밤리로 돌아가 즉시 문중의 원로들에게 전말을 보고하였다. 원로들은 다 같이 봉기하기로 결심하고 8명의 이름으로 된 통고문을 만들어 문중의 젊은이들을 통해 거사하기를 권하였다. 8명의 발기인은 이용중(李龍中), 이인재(李仁載), 이석관(李錫觀), 이석진(李錫晉), 이수일(李樹一), 이석수(李錫壽), 이수만(李樹萬), 이진걸(李振杰)이다. 이들 온양의 이씨(李氏)는 지역의 대성으로 문중출신의 명망가가 운동의 주도로 나서자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일제에 항거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마을청년 이수락(李壽洛), 이희계(李希季), 이쾌덕(李快德), 이용락(李龍洛) 등은 민족 독립을 위해 몸 바칠 것을 다짐하고 거사를 결의하였다. 이들은 모두가 당시 한학자인 이용중(李龍中)에게 한문을 배우던 21세의 청년들이었다. 때 마침 일어난 4월 2일 연양시위와 4월 4·5일 병영에서의 대대적인 항일의거는 이들의 용기를 더욱 북돋우어 준비를 서두르게 하였다.

이들은 거사일을 4월 8일 온양면 남창리(南倉里) 장날로 정하고 동지를 규합하였다.¹⁵⁾ 때 마침 석천리 이쾌경(李快慶)이 찾아와 모의에 가담하게 되었다. 드디어 남창리 장날을 하루 앞둔 4월 7일 밤 이들 5인의 주동인물들은 이용락의 집 안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태극기를 만들었다. 4월 8일 주동인물들은 이른 아침 남창리 장으로 잠입하여 장꾼들이 모여드는 것을 기다리던 중 오후 4시경이 되자 재빨리 일제히 독립만세를 불렀다.

수백명의 장꾼과 상인들이 여기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연호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군경은 크게 놀라 공포를 발사하면서 주동인물 이수락, 이쾌락, 이희계, 이쾌경 등 4인을 검거하였다. 이용락은 피신하여 같은 동리사람으로 포목상을 경영하던 윤두찬(尹斗贊)의 상점으로 달려가 ‘대한독립만세’라고 크게 써서 장대에 달아들고 나왔다.

이때 고기룡(高基龍)이 자진하여 이 기를 받아들고 선두에서 군중을 지휘하자 이수필(李樹苾), 안병철(安병哲), 김우상(金禹祥), 우동진(禹東璫) 등이 합세하여 더욱 기세를 떨쳤으나 무자비한 일경의 총검 앞에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이용락은 다음 목도 장날에 재기할 계획으로 피신하였다가 검거되었다. 이 의거에서 검거된

15) 경상남도경찰부, 1936, 앞의 책, 14쪽.

자는 모두 9명으로 이들 가운데 2명을 제외한 7명은 재판 결과 6개월 내지 1년형의 징역 언도를 받아 각각 부산, 대구, 서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이후 이재락은 1925년 8월 김창숙이 중국으로부터 비밀리에 입국하여 내몽고(內蒙古)지방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할 자금으로 20만원 모금을 목표로 활동할 때 이에 찬동하여 1차로 200원을 1926년 1월경에 제공하고, 2차로 800원 등 합계 1,000원을 자진하여 군자금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20만원 군자금 모금계획이 목표에 미달하자 1926년 3월 17일 경상남도 동래군 범어사에서 손후익, 정수기 등과 함께 밀의를 거듭하여 제2차 계획으로서 소액 응모한 부호들에게 거액 응모를 요구키로 결정하고 활동하다가 1926년 3월에 일경에 발각되어 잡혔다. 1927년 3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 받았다.¹⁶⁾

남창 3·1만세 시위를 기념하기 위한 탑이 옛 일본주재소가 있었던 자리인 온양초등학교 정문 옆에 세워져 있다.

4) 기타 의거

웅촌면 고야리 박종화(朴宗和)는 남창리 의거에 참가한 인사들과 함께 금란계를 조직하였다. 그는 투옥 인사들의 사식대(私食代)를 보조해 줄 생각으로 금란계 계원 김병룡(金秉龍), 서인규(徐仁奎)를 찾아가던 도중 의분을 참지 못하여 울산군 웅상면(熊上面) 면장 이장훈에게 퇴직권고서를 전달하다가 서창 헌병파출소에 검거되었다. 그는 부산 검사국으로 송치 도중 계속 만세를 부르면서 이들에게 저항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산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온산면 당월리(唐月里) 김인석(金仁錫)은 3·1운동 당시 울산읍 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13살의 어린 학생이었다. 그는 언양·병영·남창에서 일어난 항일 독립의거의 감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4월 15일 마을 앞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감행하기로 결심하였다. 태극기를 만들 줄도 모르던 그는 백형 김인수(金仁守)에게서 태극기 그리는 법을 배운 후 비밀리에 많은 태극기를 만들어 집집마다 배부하면서 4월 15일에 의거하자고 종용하였다. 이때 면장 김모가 이 사실을 경찰서에 알려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20여 일만에 출옥되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 요절하고 말았다.

1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3권, 209쪽.

3. 울산의 독립운동가

일제시기 울산지역에는 대한광복회와 3·1운동 이외에도 민족해방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한 민족독립운동 지사들이 많았다. <표 2>는 앞에서 언급한 대한광복회와 울산지역의 3·1운동관련 독립유공자 이외의 독립유공자를 정리한 것이다.¹⁷⁾ 울산지역 독립운동가에 대한 구체적 연구들이 미흡한 관계로 여기서는 간략히 언급하고 순국선열들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조명은 차후의 과제로 미룬다.

<표 2> 일제하 울산지역 독립유공자(대한광복회와 3·1운동관련자 이외)

성명	관련 독립운동	출생지
최현배	조선어학회사건(1942년)	울산병영
박제민	학생운동(194년)	울주상북
차영철	광복군(1940년)	울주옹촌
김선일	의병전쟁(1906년)	울산남외
김순곤	중국방면의열단활동(1935년)	울주강동
신광재	만주방면서로군정서(192년)	울산
김의현	만주방면대한독립단(1920년)	울산
박근철	일본방면징병반대운동(194년)	울산대현
장재술	일본방면강제징용반전운동(1939년)	울산대현
손병주	일본방면비밀결사운동(1940년)	울주상북
박영	광복군(1944년)	울산
박형관	비밀결사청년회활동(1944년)	울산달동
손학익	항일격문살포, 반제동맹(1936년)	울주범서
손후익	군자금모집(1926년)	울주범서
안장원	부산학생항일운동 - 노다이사건(1940년)	울주온양
정두열	노다이사건(1940년)	울주상북
이규린	군자금모집과유림단사건(1925년)	울산대현
김덕남	일본방면민족독립운동그룹결성	울주농소
배봉수	순국당조직(1944년)	울산대현
송병홍	일본방면독립운동(1938년)	울주연양
손진인	일본방면독립운동(1925년)	울주범서
장상준	일본방면독립운동(1935년)	울주연양
최을택	신사참배거부운동과창원만세사건	울산
정진근	국내항일운동(1939년)	울산

17) 울산지역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울산보훈지청, 1998, 『우리고장 3·1독립운동』; 울산보훈지청, 1989, 『내고장 독립유공자』; 이춘걸, 1998, 『정사 울산 3·1운동』, 처용기획;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단체가 활발했던 지역은 경상도지역이다. 이 시기 독립운동의 한 가운데에 울산출신 박상진이 있었다. 그는 풍기광복단, 조선국권회복단 그리고 대한광복회로 이어지는 비밀결사운동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는 일제에 체포되어 1921년 8월 11일 대구감옥에서 38세의 일기로 교수형을 당하였다.

1910년대 울산지역에는 대창야학교와 신화리노동야학교 등의 민중교육기관이 설립되어 민족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비밀결사운동과 교육운동은 울산지역 3·1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울산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4월 2일 8일까지 언양·병영·남창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일어났다. 시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운동의 치열성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도 대단하였다. 언양지역 봉기와 천도교의 역할, 병영봉기를 주도한 병영청년회, 남창봉기에서 이씨 문중의 주도적 참여 등은 앞으로 3·1운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울산지역 3·1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이후 1920년대 울산지역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하였다.

<강재순, 부경대학교 사학과 강사>

제3절 일제하 민족해방운동과 울산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청년운동을 위시로 하여 여성운동, 소년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각 부분운동이 본격화되었으며, 각종의 사상단체들도 설립되어 민중들을 계몽하고 조직화하였다. 이러한 민족해방운동들은 지역사회 단위로 서로 인적·조직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지역사회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울산지역에서도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청년운동, 사회운동, 신간회운동 등이다. 이 중 사회운동에는 사상운동이 포함되며, 소년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도 포함된다. 이하 울산지역의 1920년대 각층의 민족운동을 각 부문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청년운동

청년운동이 우리 민족해방운동사에 대중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3·1운동 이후이다. 3·1운동을 통하여 민족의식이 급격히 성장한 청년층은 다양한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민족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청년운동은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던 다른 대중운동에 활력을 줌으로써 민족해방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20년대 울산지역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청년운동이 전개되었다.¹⁾

1) 울산청년회

울산지역 청년운동과 사회운동의 핵심인 울산청년회는 1920년 2월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임원진은 알 수 없고, 1921년 8월 현재 간부진은 회장 박병호(朴秉鎬), 총무 손정수, 운동부장 박향묵, 교육부장 임태규, 평의원 이종천(李種天) 등이었다.

1922년 4월 23일 정기총회 당시 임원진은 회장 박병호, 총무 손정수, 평의원 서형식, 박향묵, 박남극, 김동욱, 임태규가 재임되고, 윤영규, 박지양, 박봉수, 서달식,

1) 청년운동 일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조찬석, 1985, 「1920년대 경상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논문집』 19 ;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연구반, 1995,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이종천, 차덕출 등이 평의원으로 새로 선임되었다. 김동욱, 박지양, 차덕출 등은 이 시기 천도교청년회 울산지회의 간부이기도 하다.

1922년 10월 17일 6회 정기총회에서는 종래의 회장제를 집행위원제로 변경하였다. 선임된 집행위원은 박병호, 서형식(徐炯植), 김동욱(金東旭), 박향묵(朴鄉默), 박봉수(朴奉壽), 손정수(孫楨秀), 박성진(朴聖鎭), 박주복(朴周馥), 이종천, 박남극(朴南極) 등이다.²⁾

울산청년회의 활동을 살펴보자. 첫째 강연회를 통한 민중계몽이다. 울산청년회는 1921년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울산군 내 전 면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 연사는 청년회 간부들이 맡았다. 강연 주제로는 청년운동의 필요성, 농촌 개량문제, 교육문제와 인격 수양, 노동의 신성, 부인해방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³⁾ 1921년 9월에는 조선청년연합회 순회강연단 일행을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하였다. 오상근의 「각 청년단체와 연합회」, 윤자영의 「청년운동의 제일보」 등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연합회의 취지를 선전하기 위한 연제(演題)로 강연하였다.⁴⁾ 1922년 11월에도 울산청년회는 생활개선과 소비절약을 선전하기 위하여 울산군내 각 면을 순회 강연하였다. 박병호 등은 「농촌발전과 경제적 자각」, 「농촌경제와 협동생활」, 「우리의 생도」라는 주제로 지역마다 연설회를 열었다.⁵⁾

다음은 보건활동이다. 1920년 8월 강동면을 시작으로 온산·서생·두동·농소·병영 등에서 괴질이 발생하자 울산청년회는 방역단을 조직하여 예방활동에 나섰다. 1922년 12월에는 울산청년회관에서 겨울철 위생에 관한 강연회를 열었다.⁶⁾

울산청년회는 청년회의 취지 선전과 민중 계몽을 위한 방책으로 연예활동도 펼쳤다. 1921년 10월 울산청년회 연예단은 울산 및 병영에서 신파 연극을 공연하였다. 현대적인 사회극의 각본을 창작하여 지방문화의 선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병영청년회가 기부금을 내는 등 적극 후원하였다. 이외에도 대구 무산소년야학회 음악무용단의 울산공연을 후원하는 등 공연이나 웅변대회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⁷⁾

울산청년회의 다른 활동으로는 체육활동이 있다. 1922년 8월에는 회장 박병호의 주도로 경주와 울산에서 경주청년회와 운동시합을 통해 우의를 다졌다.⁸⁾ 1925년 5

2) 『동아일보』 1922. 5. 7 ; 1922. 11. 2.

3) 『동아일보』 1921. 8. 17, 29, 31 ; 1921. 9. 12.

4) 『동아일보』 1921. 10. 4, 7.

5) 『동아일보』 1922. 11. 14, 19, 22.

6) 『동아일보』 1920. 8. 16 ; 『동아일보』 1922. 12. 20.

7) 『동아일보』 1921. 10. 9. ; 『조선일보』 1925. 8. 7, 23.

8) 『동아일보』 1922. 8. 30 ; 1922. 11. 3 ; 1925. 5. 31 ; 『조선일보』 1923. 11. 6 ; 1925. 11. 9.

월에도 울산청년회 주최로 양산·경주·언양 등지의 청년회와 연대하여 정구대회를 열었다. 1923년 11월 울산청년회 주최로 시민대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울산청년회의 또 다른 사업으로는 풍속개량이 있다. 울산청년회는 교풍부(矯風部)를 두어 회원 및 일반의 풍기 교정을 독려하였다. 1922년 2월 제2회 창립기념일을 기해서는 회규에서 정한 회원의 수양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원명잠」을 발표하고 이를 조선청년연합회 강령과 함께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다.⁹⁾

- | | |
|---------------------|-----------------|
| - 신조 정의인도(正義人道) | - 주의 공존공영(共存共榮) |
| - 교제 대동단결(大同團結) | - 행정 실천궁행(實踐窮行) |
| - 풍의(風儀) 엄견질박(嚴堅質朴) | - 직업 양력성일(量力誠一) |
| - 숭배 위덕양행(偉德良行) | - 배척 패리위선(悖理僞善) |

울산청년회는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1923년 7월 울산청년회관에서 군민대회를 열어 공의(公醫)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법원지청의 부활 기성동맹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울산 시구(市區) 개정문제는 다년간의 현안이었는데, 그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청년회 주최로 1922년 12월 시구개정기성회를 조직하였다.¹⁰⁾

다음은 노동신성사상의 고취이다. 울산청년회는 노동신성을 선전하기 위하여 매달 첫째 일요일을 노동일로 정하여 회원 일동이 공동으로 노역에 출역하여 노동의 신성함을 알게 하고, 일반청년으로서 공상을 없애고 역행을 장려키로 하였다. 실제로 1925년 5월 1일 첫째 일요일에 회원들은 노동복을 입고, 노동기구를 휴대하고 회관 정원에 회집하여 회관 앞 도로수축, 정원소제 및 식수 등을 행하였다.¹¹⁾

울산청년회는 일찍부터 조선청년회연합회에 가입하여 조선청년회연합회의 혁신을 기도하였다. 조선청년회연합회의 발기에는 박병호, 이종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병호는 청년당 사원이기도 하였다. 이후 조선청년당대회와 조선청년총동맹의 발기에도 울산청년회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립대학설립운동에도 발기인으로 김홍경(金洪經), 김정국(金正國), 박병호(朴秉鎬), 이재락(李在洛) 등이 참여하였다.¹²⁾

1925년 4월 울산청년회는 전 울산지역 청년단체를 회동하여 청년운동의 연락통

9) 『동아일보』 1921. 8. 25 ; 1922. 2. 10.

10) 『동아일보』 1921. 5. 7 ; 1922. 12. 20 ; 『조선일보』 1923. 7. 12, 15.

11) 『동아일보』 1925. 4. 8 ; 『조선일보』 1925. 3. 11.

12) 『조선일보』 1923. 2. 3 ; 1923. 3. 22, 29 ; 1923. 4. 3, 28 ; 『동아일보』 1926. 9. 6.

일을 피하기 위해 군내 각 청년회의 간부를 청하여 울산청년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¹³⁾ 이것은 울산군 내 청년단체들을 통합하여 울산청년연맹을 창립하기 위한 시도였다.

1925년 5월 제9회 정기총회에서는 신강령을 세우고 혁신의 기운을 촉진하였다. 동시에 조선청년총동맹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 제한을 실시한 결과 역대 간부 중에 창립 이후 꾸준히 활동해오던 박병호, 손정수 등이 특별회원으로 편입되었다. 그 뒤를 이어 차용규, 박광호, 차덕출, 박정업, 김맹호 등 새로운 간부진이 신진 회원을 다수 모집하여 지반을 공고히 하였다. 정기총회 당시 회원은 62명이다.¹⁴⁾

1927년 5월 정기총회 당시 임원은 박두정(회장), 손영기, 김창준, 김유성, 장도식, 박현호, 박용호 등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중앙협의회에 관한 사항, 여청 및 노청(勞靑) 축성의 건, 농촌에 대한 표어 모집 및 농촌청년회 축성의 건 등을 논의하여 여성청년회, 노동청년회, 농촌청년회의 조직 축성 등 청년운동의 활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울산청년동맹의 결성을 위한 전제작업이었다.¹⁵⁾

2) 병영청년회

병영지역 3·1운동을 주도하였던 병영청년회는 1919년 창립되었다.¹⁶⁾ 병영청년회는 노동야학과 부인야학을 운영하는 한편 수재의연금을 모아 병영 노농동지회를 후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병영청년회는 1925년 8월 제2회 정기총회를 4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당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진 가운데 병영 3·1운동을 주도하였던 인물들이 보이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회장 오의상(吳義相), 총무 양석룡(梁錫龍), 서무부 유창식(劉昌植), 재무부 김남석(金南石), 교풍부 이문호(李文鎬), 운동부 최현표(崔鉉杓), 문예부 이문조(李文祚), 서기 이갑룡(李甲龍), 이종룡(李鍾龍), 간사 이종민(李鍾民), 이종룡, 양문도, 송기만(宋基萬), 평의원 김장수(金長壽), 김성보(金成普), 박풍호(朴豐鎬), 김재수(金在洙), 박철수(朴哲秀)

13) 『동아일보』 1925. 4. 6.

14) 『동아일보』 1925. 5. 31 ; 1926. 9. 6.

15) 선우기성, 1973, 『한국청년운동사』 ; 『동아일보』 1927. 5. 10.

16) 『동아일보』 1923. 12. 17 ; 1925. 5. 4 ; 1925. 8. 10, 17 ; 1926. 9. 6.

1925년 4월 병영청년회는 울산청년회에서 소집한 전 울산 각 단체 연합간친회에 참가한 일도 없고, 전조선 민중운동자대회를 반대한 사실도 없는데 병영청년회가 이를 반대한다고 신문에 발표되자 크게 분개하였다. 곧 긴급대회를 열고 해당자를 조사하는 동시에 민중대회를 반대하지도 않으며, 참가치도 않기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울산청년회와의 운동노선 및 청년운동의 전망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⁷⁾ 이후 병영청년회가 주도하는 울산군청년연맹과 울산청년회가 주도하는 울산청년연맹의 창립으로 울산지역 청년운동은 상당기간 분열기를 겪게 된다.

1926년 2월 병영청년회는 청년운동의 혁신을 가할 필요를 인식하고 혁신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론보다는 실천을 존중하자는 회원들의 요구로 종래의 회장제를 집행위원제로 변경하였다. 이후 7월에는 과학적 사회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연구반을 조직하였는데, 참가자가 30여 명에 이르렀다.¹⁸⁾

3) 연양청년회

연양청년회는 1919년 3·1운동의 여세로 창립되었다.¹⁹⁾ 연양청년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강연활동이 있다. 1921년 8월 신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연양청년회 회원들로 순회강연대를 조직하고, 김기오(金琪午), 김원룡(金元龍), 신학업(申學業), 오낙영(吳樂泳), 김남주(金南柱) 등을 연사로 선정, 각 면을 순회 강연하였다.

다음은 연예와 체육활동이다. 1921년 12월 농한기를 이용하여 신파극 연예단을 조직하여, 읍삼동 동남부노동야학회가 경비 곤란을 겪자 연예단에서 음력 정월을 이용 흥행하여 수입금 전액을 야학회에 기증하였다. 연양청년회는 1923년 8월 음악회를 열고 육상대운동회, 씨름대회 등의 체육활동도 벌였다. 1924년 4월에는 연양무산자동맹회의 후원 아래 연양청년회관 수선 목적으로 소인극을 흥행하였다. 무산자의 환경과 노농운동의 선전에 필요한 「농민의 서광」, 「결인의 재판」 등을 공연하여 연양농민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연양청년회는 부인야학과 노동야학도 설립, 운영하였다. 부인야학은 1924년 1월 제3회 개학식 당시 학생수가 40여 명이었다. 노동야학은 학생수가 60여 명이었다. 과목은 조선어, 한문, 산술, 일어, 습자지도 등이었다.

연양청년회는 연양지역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조선청년총동맹에도 가입하였으나

17) 『동아일보』 1925. 4. 30.

18) 『동아일보』 1926. 2. 1 ; 1926. 7. 10.

19) 『동아일보』 1921. 8. 23 ; 1921. 12. 25 ; 1922. 2. 26 ; 『조선일보』 1923. 9. 8 ; 1925. 1. 25.

1926년경에 가면 활동이 부진하여 휴식상태였다. 그러나 1928년 12월 연양소년회 사건 당시 연양청년동맹이 연루된 것으로 보아 이후에 청년운동이 다시 부활된 것으로 보인다.²⁰⁾

4) 기타 청년회

우리청년회는 온산·서생 양면 청년 유지의 발기로 1920년 9월 조직되었다. 회원이 100여 명이었다. 1921년 8월 현재 임원은 회장 김성규(金性奎), 부회장 이종형, 총무 김홍로(金弘魯), 재무부장 신태완(申泰浣), 덕육부장 조성호(趙性鎬), 체육부장 이근수(李根守) 등이다. 우리청년회는 주된 사업으로 노동야학 및 청년야학을 운영하였다. 노동야학생이 100여 명, 청년야학생은 60여 명이었으며, 교사는 조성호, 정창조 등이었다.²¹⁾

웅촌면에는 1925년 12월 박용완, 오양근, 이창락, 이규복 등 유지청년이 중심이 되어 웅촌청년회를 창립하였다. 창립총회에서 내빈으로 온 울산청년연맹 대표 박병호와 울산청년회 대표 박정업이 축하를 한 것으로 보아 울산청년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임된 임원진은 회장 박용완, 부회장 오양근, 이사 김수오, 고문 이재락, 김기성, 정인상 등이다. 고문인 이재락은 민립대학설립 울산지역 발기인이기도 하다.

농소노동청년회는 1922년경에 창립되었다. 1925년 11월 2일 부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김동선(金東先), 박응수(朴應洙), 손진규(孫晉奎), 김상태(金相泰), 박성수(朴成洙), 서재호(徐宰護), 조복술(曹福述) 등이다.

1926년을 전후에 창립된 단체 중 활동이 왕성한 청년단체로는 온양구락부, 오월청년동맹, 동면상남시대청년회, 중남청년단, 범서청년회, 농소청년회, 웅촌청년회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이 시기 울산지역에는 동면구락부, 동계친목회, 대현진명회, 두서상북청년회, 삼동청년회, 동면갑자구락부, 온산청년회, 농소노동청년회, 강동노동청년회, 서생청년회, 방어진청년회, 호일구락부, 계해구락부, 청량청년회 등 많은 청년운동 단체들이 생겨나 청년운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동면 상남시대청년회는 1927년 7월 제6회 임시총회 안건 중 「청년운동 방향전환에 관한 건」, 「전 민족유일당 촉진에 관한 건」 그리고 이에 앞서 동년 5월에 열린 위

20) 『동아일보』 1926. 9. 6 ; 『조선일보』 1928. 12. 19.

21) 『동아일보』 1921. 8. 7 ; 1921. 10. 3 ; 1925. 11. 18 ; 1926. 9. 6 ; 『조선일보』 1925. 12. 13.

원회에서는 「메이데이 기념의 건」, 「하북 소작쟁의에 관한 건」, 「울산운동선 합동축성의 건」 등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과 청년운동의 방향전환, 신간회 울산지회의 결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²²⁾

다음은 울산지역 여성운동에 대해 살펴보자. 1920년대 전반기 울산부인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나 활동이 미약하였다. 전체적으로 울산지역 여성운동은 침체된 상태였으나 울산여자청년회가 1927년 4월 28일 창립되면서 활성화되었다. 창립 당시 임원진은 회장 김복순(金福順), 부회장 박소선(朴小善), 총무 김명주(金明周) 등이다.²³⁾ 언양여자청년회는 1924년 1월 19일 언양지역 유지의 발기로 여자야학회에서 창립되었다. 임원은 회장 김덕○(金德○), 간사 정덕조(鄭德祚), 회계 이순련(李順連) 등이고 회원은 30여 명이었다.

울산지역 종교청년회는 다음과 같다. 천도교청년회 울산지회는 1920년 창립되었다. 1921년 4월 30일 제1회 정기총회 당시 개선된 임원은 회장 허준해(許俊海), 간무원(幹務員) 차덕줄(車德茁), 장진희(張璉喜), 간의원(幹議員) 김동욱(金東旭), 박지양(朴志陽), 지육부장(智育部長) 박지양 등이다.

천도교청년회 울산지회의 활동은 우선 강연회가 있다. 1921년 5월 특별대강연회를 열어 경성에서 특파된 연사 김의진이 「사람의 엄정한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연제로 강연을 하였다. 1921년 6월에는 천도교청년회 동경지회 남선순강단원을 초빙하여 울산청년회의 후원 하에 강연회를 열었다.²⁴⁾ 이외에도 천도교청년회 울산지회는 교회 내에 노동야학회를 설립·운영하였다. 조선어·일어·산술·한문 등을 가르쳤는데 입학자가 증가하여 40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천도교청년회 울산지회의 활동은 강연회 개최와 노동야학 등을 운영하여 민중계몽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울산기독교청년회는 1921년 5월 14일 울산군 소재 20개 교회의 청년 남녀를 규합하여 창립되었다. 임원진은 회장 권석규(權錫珪), 총무 이종진(李種珍), 서무부장 김도경(金道經), 재무부장 안영모(安泳謨), 종교부장 허잠(許潛), 문예부장 최석기(崔錫基), 운동부장 김언수(金彦洙), 경제부장 진영석(陳永石), 고문 이규한(李圭漢), 서기 이종민(李種旻) 진경수(陳敬壽) 등이다. 울산기독교 청년회장 권석규와 이규명 등은 강정예수교회당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였다.²⁵⁾

울산불교청년회는 1926년 7월 창립되었다. 간사장 박현호(朴玄鎬), 간사 손구수

22) 『동아일보』 1926. 9. 6 ; 1927. 5. 10 ; 1927. 7. 30.

23) 『조선일보』 1923. 5. 9 ; 『동아일보』 1924. 1. 24 ; 1927. 5. 13.

24) 『동아일보』 1921. 5. 7 ; 1921. 6. 3 ; 1921. 7. 5.

25) 『동아일보』 1921. 5. 19 ; 1922. 3. 26 ; 1926. 8. 9.

(孫龜秀), 고문 임태규(林泰圭) 등이었다. 불교청년회는 소년단을 조직하고, 고등강습회를 개설하였다.

5) 청년운동의 분열 - 울산청년연맹과 울산군청년연맹

1925년 10월 17일 병영 오일회(五一會)와 성우회(城友會)는 울산군내 청년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울산군청년연맹을 조직하고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사회는 오일회의 강대곤, 임시의장은 언양청년회 대표 신영업이 맡았다. 준비위원은 유창식, 강대곤, 이종건, 윤철한 등이다. 규약기초위원은 신영업, 성세빈, 조형진, 강대곤, 오의상 등이었다. 울산성우회, 병영청년회, 병영오일회, 병영노동친목회, 언양청년회, 상남시대청년회, 중남청년회, 두서두북청년회, 삼동청년회, 동면동면구락부(東面同勉俱樂部), 동면갑자구락부, 대현진명회, 온산청년회, 농소노동청년회, 강동노동청년회 등이 발기단체로 참여했다.

울산군청년연맹 창립대회는 10월 18일 울산읍 성우회 회관에서 지역사회운동단체 대표 27명이 모여 개회를 선언하였으나 수십명의 청년이 회장 안으로 돌입하여 일대 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날 소동을 벌인 청년들은 울산청년회의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울산청년회, 울산혁신회, 온양구락부 등의 발기로 이미 1925년 5월에 9개 단체를 결속하여 울산청년연맹을 조직하였는데, 다시 청년연맹을 조직하는데 불만을 품고 대회를 열지 못하게 한 것이다.²⁶⁾ 그러나 울산군청년연맹측 준비위원들은 다시 19일 병영오일회 회관에 모여 울산군청년연맹의 집행위원을 선임하고 창립을 선언하였다.²⁷⁾

집행위원 : 성세빈, 윤철한, 박문한, 이일태, 유창식, 김정학, 신영업, 김복조, 김정현, 권우락, 이종룡, 김두현, 이신우, 김태철, 황용시, 신태중, 조형진, 강철

검사위원 : 오의상, 김택천, 김만출

결의사항 : 1.청년단체 조직에 관한 건 1.청년교양에 관한 건 1.노동운동에 관한 건 1.여성운동에 관한 건 1.형평운동에 관한 건 1.소년운동에 관한 건 1.이류단체에 관한 건 1.회보 발행에 관한 건

26) 『동아일보』 1925. 10. 13, 23 ; 『조선일보』 1925. 10. 22.

27) 『동아일보』 1925. 10. 20, 26, 28.

울산군청년연맹이 창립되자 울산청년회 간부 변동조는 청중에 울산청년회를 대표하여 ①오인(吾人)은 울산군청년연맹의 창립을 부인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퇴치할 일 ②금번 울산청년운동의 분열을 기도하며 퇴란케 한 책임자 강철, 박영만, 조형진 등을 적당한 방법으로 문징할 일 ③울산청년운동의 분열과 퇴란을 야기하게 한 현 화요회 계통 경성신흥청년동맹원 김단야, 전조선수재구제회 경남조사위원 임원근, 권태희 등의 죄악을 적발하여 조선사회운동선에서 퇴치할 일 등 사건의 전말과 입장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울산군청년연맹 창립대회사건에 대한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의를 본 울산군청년연맹은 크게 분개하여 25일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①금번 울산군내 16단체의 발기로 조직된 울산군청년연맹 창립대회에 울산청년회가 이미 금년 봄에 9개 단체의 결속으로 울산청년연맹을 결성하였다 하나 사실은 봄에 울산청년회의 발기로 군내 몇개 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 중 ‘1.민중운동자 대회를 반대함 1.울산청년연맹을 발기할 일 의 결의만 하였다. 그 후 하등의 회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담한 단체는 3개 단체뿐이다. 그들의 금번 울산군청년연맹에 대한 행동은 민중운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함 ②이 사실의 진상을 조사하지 않고 편벽되게 청중 가맹단체임을 빙자하고 울산청년회를 옹호하는 조선청년총동맹은 반동세력을 조장함을 인정함이라고 비판하였다.²⁸⁾

그런데 1926년 7월 중남청년단에서 구제금(救濟金) 분배문제를 울산군청년연맹에 이의를 제기하여 일대 파란이 일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1925년 러시아에서 온 조선 수재구금(水災求金) 분배에 대하여 경성 기근구제회에서 피해를 입은 각 도와 군에 위원을 파견하여 피해자에게 분배케 하였는데, 울산군에서는 기근구제회 경남출장원 배덕수(裨德秀)가 부산에서 울산군청년연맹 위원 조형진을 만나 분배를 위탁하였던 바, 울산군청년연맹에서는 다시 조형진, 강철 등을 각 면에 파견하여 작년 수재 피해자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적빈자(赤貧者)에게 얼마씩 분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인사들은 소위 수재피해상황 조사위원이라 하고 1925년 10월에 울산을 방문한 임원근(林元根) 일행은 아무런 조사도 없이 다만 울산군청년연맹 창립 총회에만 참석하였을 뿐이라 하였다. 이들은 조사위원이 당시 울산청년회 및 울산청년연맹측에서는 기근구제회에 대하여 여비를 악용하는 등 불순정책을 성토한 사실을 회상하고 또한 자금의 분배방식의 불철저함을 보고 주의하던 중 중남청년단에서 울산군청년연맹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문제로 중남청년단은 결국 울산군청년연

28) 『동아일보』 1925. 11. 7, 27 ; 1925. 12. 18.

맹에서 탈퇴하였다.²⁹⁾ 당시 울산청년연맹에는 1926년 9월 현재 울산청년회, 범서청년회, 웅촌청년회, 온양구락부, 농소청년회, 서생청년회등이 가입되어 있었다.

울산지역 내 청년운동의 분열은 단순한 지역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전국적으로 청년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던 사회주의 계파간의 노선 갈등의 결과였다. 울산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울산청년연맹측은 서울파였고, 병영청년회를 중심으로 하는 울산군청년연맹측은 화요파 계통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울산군청년연맹과 울산청년연맹의 분열로 인해 울산지역의 청년운동을 비롯한 지역사회운동은 일정기간 침체기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사회운동

1) 단주·단연동맹과 사상단체

먼저 단주단연동맹(斷酒斷煙同盟)의 조직이다. 1923년 4월 강동면 신현리 박대만의 주도하에 동민이 단주단연동맹을 조직하였다. 온산면 처용리에서는 삼일회(三一會)를 조직하고 토산장려와 함께 소비절약을 위한 단주단연동맹운동을 벌였다. 매년 3월 1일마다 위 취지를 선전하고 단주·단연으로 모은 돈을 저금하여 교육사업에 충용하였는데, 회원이 2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농소면 송정리, 중남면 신화리에서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단주단연동맹을 조직하였다.³⁰⁾

1924년 이후 울산지역에도 사회 사상단체들이 조직되었다. 1924년 3월 39명의 발기로 언양무산자 동맹회가 조직되었다. 언양무산자 동맹회는 조선청년총동맹 창립 당시 가맹하였다.³¹⁾ 언양무산자 동맹회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무산계급의 의식을 촉진할 신사상 연구 및 보급함을 목적으로 함 ②무산대중 해방운동에 노력함 ③무산대중을 본위로 한 신사회 건설을 기도함 등 노농운동을 지향하는 사상단체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25년 2월 11일 울산청년회관에서 사상단체인 혁신회(革新會)가 창립되었다. 울산청년회 위원장 박현호(朴玄鎬)외 각 단체 대표와 유지의 참석 하에 발기인 대표 변노○의 발기 선언이 있는 후 임시의장으로 변노○, 서기 김철, 사찰 박노악, 김유성 등이 피선되었으며, 위원은 박정업, 김철, 변노○ 등이었다. 혁신회의 강령은 ①오인

29) 『동아일보』 1926. 7. 16 ; 1926. 8. 23.

30) 『동아일보』 1923. 4. 25, 26, 28 ; 1923. 5. 23.

31) 『조선일보』 1924. 4. 6, 23.

(吾人)은 개인 및 단체의 교양과 훈련으로 각자의 인격 완성을 기함 ②오인은 정의인도(正義人道)의 원칙 하에 청년운동의 혁신을 기함 등이다.³²⁾

성우회(城友會)는 1925년 4월 26일 창립되었다. 강령은 ①친밀과 협동을 공고히 함 ②책임과 의무를 단행하기로 함 등이다. 1925년 5월17일에 열린 임시총회에는 전 울산을 통하여 다수 회원이 출석하였다. 선임된 집행위원은 조형진(曹亨珍), 윤철한(尹鐵漢), 김문성(金文星), 오의상(吳義相), 강철(姜徹) 등이다.

1925년 7월 성우회는 울산소년회와 공동 주최로 잡지 『어린이』의 주간 방정환(方定煥) 등을 초빙하여 울산보통학교에서 소년문제 강연회와 현상소년소녀동요동화대회를 개최하였다. 윤철한의 사회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200여 청중이 운집하였다. 그런데 1925년 12월 10일 성우회관을 일제경찰이 돌연 수색하여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 권오설로부터 울산군청년연맹 상무위원 조형진에게 온 편지 한 장을 압수하였다.³³⁾ 이것은 성우회가 표면적인 활동 이면에 강철, 조형진 등의 사상단체적 활동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1926년 2월 조선일보 연양지국 기자 김기오(金淇午)의 도임을 기하여 동아일보 지국장 박병호와 시대일보 지국장 강철 등이 울산기자단 발기를 논의하였다. 이어 3월 7일에는 울산청년회관에서 울산기자단을 창립하였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특히 지역사회운동의 당면과제인 울산청년연맹과 울산군청년연맹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³⁴⁾

이 날 결의사항을 보면 ①언론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일 ②민중운동을 촉진키 위하여 이를 원조하는 동시에 반동세력이 발호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제지적 여론을 환기할 일 ③농촌 및 어촌의 진흥에 노력하며 소작인 및 해상노동자의 생활을 침해하는 각 방면의 사실을 조사, 발표하여 대중의 각성을 촉진할 일 ④사회운동의 통일을 촉진하여 우선 울산운동선을 합동케 노력할 일 등이다. 이것은 울산기자단이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 민중운동에 대한 지향을 가지는 사상단체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한다.³⁵⁾

울산군 내의 중추 인물을 조직하여 여론이 중추가 될 것을 결의하고 조직된 민우회(民友會)는 1927년 6월 창립되었다.³⁶⁾ 이들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죽어도 민

32) 『조선일보』 1925. 3. 8.

33) 『동아일보』 1925. 4. 30 ; 1925. 5. 25 ; 1925. 7. 26 ; 『조선일보』 1925. 12. 13.

34) 울산기자단의 강령과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다. ; 집행위원 : 박병호(동아), 강철(시대), 조형진(사상), 김기오(조선), 김문성(조선).

35) 『조선일보』 1926. 2. 28 ; 1926. 3. 11.

36) 『동아일보』 1927. 1. 29 ; 1927. 6. 16 ; 1927. 10. 8 ; 1928. 2. 25 『조선일보』 1927. 12. 8.

(民)은 민이 되자 ②인격을 수양하자 ③힘과 권위는 단결에서 구하자 ④청년을 도와 주자 ⑤소년을 잘 기르자 등이다. 민우회는 1927년 10월 3일 울산 불교포교당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영학원 인수와 울산전기회사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1927년 12월 임시총회에서는 울산의 양대 문제인 수리조합과 전기회사에 관한 건을 임시의 장 박병호의 사회로 토의하였다.

먼저 수리조합 창립반대지구대회와 성원(聲援) 요구의 건은 조사위원 박병호, 서형식, 김교수를 선정하여 철저한 조사를 한 후 태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 울산전기회사는 전등요금에 다른 지방보다 매우 비쌀 뿐만 아니라 회사로서 수용가(需用家)에 불친절하고 고장이 빈발하여 일반의 불평이 자자하니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그 대책을 결정하되 위원회에 준비를 일임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민우회는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꾀하였다. 민우회는 이후 울산청년동맹과 신간회 울산지회와 함께 1920년대 후반 울산지역사회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소년운동

1921년 9월 현재 울산지역에는 울산 천도교소년회와 불교소년회, 기독교소년회가 있었다. 1923년 6월에는 울산어린이회가 조직되었다.³⁷⁾

울산 천도교소년회는 1925년 6월 축구교실을 열었다. 소년극단을 조직하여 언양과 상남면 거리(巨里) 천도교 교회당에서 사회극으로 「청년의 개심」과 종교극 「신생의 일」 등을 공연하여 민중계몽활동을 폈다.³⁸⁾ 1926년 소년운동의 강화를 절감한 오흥○(吳興○), 김주○(金周○), 박영명(朴永明), 최원식(崔元植), 손명수(孫明秀), 안석주(安石柱) 외 20여 소년이 배명집(裴銘執)의 후원을 얻어 1926년 3월 14일 울산청년회관에서 울산소년회를 창립하였다. 병영소년회는 의연금으로 악기를 구입하여 음악활동을 펴고, 정월 명절을 이용하여 연극을 공연하였다.³⁹⁾ 중남소년단은 1925년 4월 회보를 창간, 등사로 매월 간행하여 각 단원에게 배포하였다.

소년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곳은 언양지역이다. 언양소년단은 소년단의 취지를 선전키 위해 추계 대운동회와 소년소녀가극회를 열었다. 언양소년단의 활동은 언양청년회 및 기타 사회운동단체의 후원을 많이 받았다. 1924년 8월에는 언양청년회와 공동 주최로 현상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계몽활동을 폈다.⁴⁰⁾

37) 『동아일보』 1921. 9. 18 ; 『조선일보』 1923. 6. 21.

38) 『동아일보』 1924. 1. 16 ; 1924. 3. 4 ; 1925. 6. 24 ; 『조선일보』 1925. 1. 1 ; 1926. 2. 28.

39) 『동아일보』 1924. 1. 16 ; 1924. 3. 4 ; 『조선일보』 1926. 1. 18 ; 1926. 3. 10.

언양지역 소년운동의 발전은 1920년대 후반 언양소년회사건으로 이어졌다. 1928년 12월 언양공립보통학교 6학년 김동하(金東河)가 울산경찰서에 구속되었다. 김동하는 언양소년회 회원이었다. 이어 언양소년회 간부인 신시돌(申時玆)과 이동계(李東桂)의 가택 및 언양소년회, 신간회 울산지회 언양반, 언양농민조합, 언양청년동맹 등이 수색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언양면 서부리 언양소년단 간부 이동계(19세)와 남부리 언양소년회원 김동하(17세)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동계의 경우 언양청년동맹 회원으로서 1925년 3월 언양소년단의 간부가 된 이래 소년단에서 모든 지도를 해오면서 독립사상을 선전하였다는 것이다.

김동하는 1926년 3월 언양소년회에 입회하여 소년회 간부 신영업(申榮業), 이동계와 언양청년동맹원 오정호 등이 항상 언양소년회는 조선독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의 지도에 직·간접적으로 자극 받아 1928년 12월 8일 자기 집에서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선전지를 작성하여 그것을 12월 18일 언양주재소 앞 게시판에 부착한 것과 그가 다니는 언양공립보통학교에서 만국기를 그려오라는 숙제를 내주자 그 가운데 ‘구(舊)한국태극기’를 그려 넣었다는 것이다. 검사는 비록 나이는 어리나 그 의식은 장래 민족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확실한 신념을 세운 것으로 그들의 소년운동은 당시 일본 국체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1년을 구형한 것이다.⁴¹⁾

1930년 1월 28일에도 울산경찰서 형사대가 언양주재소로 급거 출동하여 언양소년회 간부와 회원 8명을 검거하는 동시에 가택 수색과 각 단체회관을 수색하였다. 이날 아침 언양주재소 부근에 붙은 격문이 배부된 까닭이다.⁴²⁾ 이는 당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아 언양지역에서도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3) 농민운동

중남면 신화리에서는 1922년 농촌공조회를 조직하였다. 중남면 농촌공조회는 사회변영과 농촌개조의 원동력을 발휘할 사명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일반 면민이 의무회원으로 1923년 11월 제2회 정기총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주-소작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지금 우리 소작인이 이러한 곤경에 빠진 것은 지주의 폭악무도함이 둘째요, 첫째는 우리 소작인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소작인

40) 『조선일보』 1923. 11. 14 ; 『동아일보』 1924. 1. 10 ; 1924. 8. 11 ; 1926. 8. 29.

41) 『조선일보』 1928. 12. 19 ; 1929. 5. 17 ; 『동아일보』 1929. 3. 23.

42) 『조선일보』 1930. 1. 31.

이 일치 단결하여 우리의 지위를 획득하며, 권리를 도모키에는 노력치 않고 각 개인은 각자위심(各自爲心)하여 간악한 수단으로 지주를 도와준인 즉, 이러한 행동은 우리 소작인의 자멸적 수단이며 이러한 분자는 우리 사회의 악마이다 라고까지 주장하였다.⁴³⁾ 이것은 중남면 농촌공제회가 단순한 관제 농민단체가 아님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1923년 12월 울산소작인회에서는 소작인 생활실태 및 소작료 남봉(濫奉) 지주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면으로 출장하였다. 지역 및 시찰원은 하상면·농소면·강동면·동면·대현면(조형진)·온산면·서생면·온양면·청량면·웅촌면(윤철한, 박문한)·범서면·두동면·구연양 5개면(오덕상, 김택천, 신학업, 오테영) 등이다.⁴⁴⁾ 이들 시찰원들은 이 시기를 전후해 울산지역 청년운동과 지역사회운동의 핵심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1924년 12월 울산읍 우정·학산·옥교동에서는 유지들의 발기로 농민회를 창립하고, 야학을 운영하였다. 농민회가 발전하자 이후에는 동별로 분리되었다. 1926년 2월 학산동 노동청년으로 조직된 학산농우회(鶴山農友會)가 활동하고 있었다. 우정동농우회(農友會)는 1925년 8월 동사(洞舍)를 수리하여 야학을 개설하고, 박재익, 성재룡, 박창수, 차용규, 박근학, 목영식 등이 교수하였다. 취학하는 노동자 및 소년 노동자가 40 50명에 이르렀다.

1926년 3월 옥교동 노동농민청년으로 조직된 옥교농우회(玉橋農友會)는 제3회 정기총회를 의장 김소동(金小童)의 사회로 열었다. 회장 이원식(李元植), 총무 박주조(朴周昨), 회계 구명득(具命得), 야학학감 윤복이(尹福伊), 상(常)의원 최작지(崔作支), 김성출(金成出), 박연(朴連), 김무환(金武煥), 윤영준(尹泳竣) 등을 선출하였다. 옥교농우회도 노동야학을 경영하였다.⁴⁵⁾

다음은 192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된 울산지역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 대해 살펴보자. 혁명적 농민조합은 적색 농민조합이며, 좌익적 성향을 띠는 농민조합이다. 서생농민조합은 1931년경에 결성되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31년 6월경 일제경찰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고 해체되었다. 관변단체인 농청(農廳)을 개조하여 1928년 3월경 창립한 언양농민조합도 소작관계개선 투쟁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1932년 9월경 일제경찰에 의해 해체되었다.

1928년 12월 언양소년회사건 당시에도 언양농민조합이 일제경찰에 의해 회관을

43) 『조선일보』 1923. 5. 23 ; 1923. 12. 2.

44) 『동아일보』 1923. 12. 20.

45) 『조선일보』 1924. 12. 21 ; 1925. 11. 9 ; 1926. 2. 28 ; 1926. 3. 4.

수색당하는 것으로 보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일제경찰측의 한 문서에 의하면 언양농민조합의 간부인 신학업(申學業)은 1931년 9월 ‘조선공산당 재건 경남적색농민조합건설 동부위원회에 가맹, 울산 오르그로서 활약 하였다고 한다. 이후 신학업은 언양농민조합을 매개로 언양면의 서봉이(徐鳳伊), 신주식 등과 함께 소작권 이동 반대, 소작료 4할제 실시, 지세 지주부담 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밖에도 대송농조(大松農組) 등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울산군 전체 단위의 농조는 없었다. 당시 신문들은 서생농조를 울산농조라고 통칭하였다.⁴⁷⁾ 이후에도 울산지역에서 적색농조 조직사건이 발각되어 이미동(李美東), 박상선(朴相善) 등 5명이 예심에 회부되었다는 신문기사가 보이나, 이는 적색농조사건이 아니라 1935년 3월에 검거된 적색독서회사건에 대한 기사인 듯하다.⁴⁸⁾

4) 노동운동

1923년 12월 23일 울산청년회관에서 울산노동동우회가 창립되었다. 울산군내 19개 면에서 120여 인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임시의장 박병호의 사회로 각 면에 지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원은 면 단위로 선임하여 울산면(손정수 · 김동옥), 온양면(박규복 · 이흥걸), 하상면(황덕원), 청량면(김관택), 농소면(이종진 · 박영수), 범서면(서대규), 강동면(김성하 · 김봉구), 웅촌면(김두원), 동면(천○갑 · 김봉○), 대현면(박현기 · 이종호), 두서면 온양면(이규락), 언양면(오인영 · 신인호), 서생면(이규환 · 김남석), 하북면(정희호), 상남면(김규두), 중남면(김효동 · 곽해○), 상북면(우진동 · 김○현) 등이고, 본회의 위원은 박병호, 서형식, 박남극, 이규명, 김민경 등이다.⁴⁹⁾

방어진노동자친목회는 1924년 8월 26일 동면 방어리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여 창립되었다. 임시의장 강봉인의 사회로 회장 강봉인(姜奉仁), 부회장 김대언(金大彦), 지육부장 황치열(黃致烈), 재무부장 이춘화(李春花), 평의원 장영극(張泳極), 고문 황규열(黃圭烈) 등을 선정하였다. 방어진노동친목회는 상구(喪具)를 비치하는 창고를 지어 회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했으며, 부당하게 시행되고 있던 전금(前金)을 철폐하려고 하였다.⁵⁰⁾

46) 『조선일보』 1928. 12. 19 ; 『동아일보』 1931. 7. 8 ; 1932. 9. 20.

47) 『동아일보』 1933. 3. 27.

48) 지수걸, 1993,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49) 『조선일보』 1923. 12. 20 ; 1924. 1. 2.

1925년 3월 10일 변동조(卞東祚) 등의 노력으로 울산청년회관에서 수백명의 노동자가 운집하여 울산노동자동맹을 창립하였다. 집행위원은 서철(徐喆), 변동조, 박정업(朴正業), 박무악(朴武岳) 외 6인이었다.⁵¹⁾ 1925년 8월경에는 병영에도 노동동지회가 조직되었다. 이는 병영청년회가 수재의연금을 병영 노동동지회에 지원키로 결정하는데서 알 수 있다.⁵²⁾

1929년 8월 18일 울산청년회관에서 울산노동조합이 창립되었다. 준비위원 김활천의 사회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조합장 김활천, 간사 김상현 외 9인의 임원이 선출됐다. 울산노동조합은 당시 울산지역 최대 현안 문제였던 수리조합 공사와 공사장 인부들의 저임금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밖에도 1930년 1월에는 울산군 동면 노동자들이 노동단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노동조합을 창립코자 김영복(金永福) 등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일제경찰 주재소에서 시국상의 이유를 들어 금지시켰다.⁵³⁾

1926년 1월 2일 울산지역에서 동맹파업이 발생했다. 운수노동자들이 조직한 울산우차조합은 울산청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부조합장 손정수(孫禎秀)의 주도로 파업을 결의했다. 울산우차조합은 곡물상(穀物商)들의 임금 인하와 비조합원의 노동행위, 그리고 부산의 일본인 대부호 대지충조(大池忠兆)가 경영하는 장생포 산중회조부(山中回漕部)에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반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생활상 막대한 피해를 입게됨으로 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이들은 파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집행위원까지 선임하였다. 집행위원은 허준해(許俊海), 박연수(朴連守), 박무환(朴武煥), 김덕룡(金德龍), 김송근(金松根), 김태근(金泰根), 최작문(崔作文), 김기선(金基先), 이종택(李鍾澤), 김재진(金在鎭), 최군선(崔君先) 등이다. 이들은 3일 각처에 동맹파업 선전광고를 붙이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우차를 정차장 앞 눈에 집합케 하여 파업을 계속하였다. 이 파업으로 곡물상 및 일본인 자본가 대지충조는 대타격을 받았다.⁵⁴⁾

1931년 3월에도 울산자동차조합 운전수동맹파업이 발생하였다. 18일 동안이나 계속된 파업은 일제 자본가인 사장이 운전사들의 요구조건을 무시하고 전원 해고함으로써 노동자측의 일방적 패배로 일단락 되었다.⁵⁵⁾

50) 『동아일보』 1924. 9. 3 ; 1925. 5. 25.

51) 『동아일보』 1925. 3. 25.

52) 『동아일보』 1925. 8. 10.

53) 『동아일보』 1929. 8. 23 ; 『조선일보』 1930. 1. 20.

54) 『조선일보』 1926. 1. 6, 7.

55) 『조선일보』 1931. 3. 12.

3. 신간회 울산지회와 울산청년동맹

1) 신간회 울산지회

1927년 당시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있던 신간회 지회 창립에 부응하여 울산지역 사회운동가들은 조형진, 양봉근 등의 주도로 1927년 11월 23일 발기회를 열었다. 이들은 신간회 본회 규약상 지회 회원이 30인 이상인 설립 요건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임시의장 양봉근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12월 12일 울산청년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회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으로는 조형진(曹亨珍), 양봉근(楊奉根), 박주복(朴周馥), 이종필(李鍾弼), 이규명(李圭明), 박문한(朴文翰), 이종화(李鍾○), 권우락(權又洛), 강철(姜徹), 신종기(辛鍾驥), 안영두(安泳料), 김활천(金活天), 박병호(朴秉鎬) 등이 선출되었다.⁵⁶⁾

그러나 1927년 12월 13일 창립대회를 열 예정이던 신간회 울산지회는 일제 울산경찰서의 금지로 돌연 연기되었다. 사실 울산지역 사회운동가들은 12월 12일 그 동안 분열되었던 울산지역의 청년운동을 통일하여 울산청년동맹 창립대회를 열고, 다음날인 13일에는 신간회 울산지회 창립대회를 열어 그 동안 침체상태에 있던 울산지역 사회운동의 부흥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신간회 울산지회 발기회에서는 준비위원들이 울산군 내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회원 모집에 진력하여 입회한 인원이 300여 명에 달하였다. 일제경찰이 양 대회의 집회를 금지시킨 이유는 금지된 불온한 취지서의 내용을 그대로 선전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불온한 동기에 있다고 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울산지역 사회운동의 발화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⁵⁷⁾

이러한 일제경찰의 방해 책동으로 신간회 울산지회의 설립대회는 몇 차례나 연기되어 다음 해인 1928년 3월 17일 울산청년회관에서 창립되었다. 창립대회 당시 신간회 울산지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⁵⁸⁾

회장 양봉근, 부회장 성세빈

간사 이규명 박주복 이규정 강철 김활천 유창식 신주극 권우락 박문한

56) 『조선일보』 1927. 11. 26 ; 1928. 3. 9 ; 『동아일보』 1927. 11. 27.

57) 『동아일보』 1927. 12. 16 ; 『조선일보』 1927. 12. 21.

58) 『동아일보』 1928. 3. 25.

박학규 이종필 이문호 장인두 등

창립 이후 회원 가입이 증가하여 신간회 울산지회는 1928년 4월 25일 간사회에서 추가로 182명의 입회원을 수리하고 있다.

1928년 5월 15일에는 기독교회관에서 임시대회를 열어 회관을 건축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2,000원의 예산은 회원이 분담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구(區)별로 5인조의 지역반(地域班)을 조직하기로 하였다.⁵⁹⁾ 1928년 12월 언양소년회사건 당시 신간회 울산지회 언양반이 나오는데 이것은 언양분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929년 12월경에는 동면분회도 활동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보아 신간회 울산지회에는 언양분회와 동면분회가 조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⁰⁾

신간회 울산지회 제1회 정기대회는 1928년 12월 27일 울산기독교교회당에서 회원 48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회장 양봉근의 개회사로 열린 이날 대회는 임시집행부로 의장 양봉근과 서기 성세빈, 사찰 김활천이 선임되고, 상무간사 신주극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토의사항을 보면 이 시기 울산지회의 활동상을 알 수 있다.⁶¹⁾ 먼저 이 시기 울산지역의 현안문제의 교육문제의 해결과 민의 의식 향상을 위해 노동야학진흥책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청년운동의 통일 촉진과 여성운동의 축성방안을 강구하였다. 다음으로 지회의 하부 단위인 각 반(班)의 여러 의안을 수리하고 이어 신간회 본부대회에 올릴 제안 등을 토의하였다.

신간회 울산지회는 1929년 8월30일 울산청년회관에서 양봉근의 사회로 임시대회를 열었다. 이날 선임된 신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장 양봉근, 서기장 김상헌(金相憲), 회계 안영두, 위원 성세용(成世隆) 이종필 박학규(朴學圭) 장인두(張仁斗) 박문한 박주복 이문조(李文祚) 이규명 권우락 김활천 정병택(鄭炳澤) 이규경(李圭庚) 신주극(申周極), 감사위원장 성세빈(成世斌), 위원 김성보(金成普) 오두상(吳斗相), 대표회원 신주극 양봉근 이규명(후보)

1930년에 3월 19일에 가면 신간회 울산지회의 임원진이 교체된다. 오랫동안 지회장과 집행위원장을 맡아왔던 양봉근이 물러나고 조형진이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하는 등 간부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1930년을 전후해서 신간회지회 차원에서는 소

59) 『동아일보』 1928. 4. 30 ; 1928. 5. 21.

60) 『조선일보』 1928. 12. 19 ; 1929. 12. 17, 21.

61) 『동아일보』 1928. 7. 7 ; 1929. 1. 2 ; 1929. 2. 22 ; 1929. 4. 26 『조선일보』 1929. 9. 4.

장파들이 대거 등장하는 예가 많은데 울산지역에서도 비슷한 것 같다. 다음은 신임 신간회 울산지회 간부진이다.

집행위원장 조형진, 서기장 김상헌, 회계 박주복, 서무부 김상헌 권우락 김○석(金○碩), 재정부 박주복 이종필 김경복(金景福), 조사선전부 성세웅 전○우(田○佑) 이문조, 교육출판부 박학규 정병택 이규경, 감사위원 성세빈 이종우(李鍾禹) 김성보 이종필 박문한, 대표위원 조형진 성세빈⁶²⁾

2) 울산청년동맹

울산군청년연맹과 울산청년연맹으로 분리되어 침체기를 맞았던 울산지역 청년운동은 1928년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청년운동의 통일을 위해 울산청년동맹을 창립하고자 1927년 12월12일 울산청년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일제경찰의 집회 금지로 무산되었다. 다음 해인 1928년 5월 16일의 재시도도 일제경찰에 의해 좌절되었다.⁶³⁾ 그 동안 울산청년동맹 창립준비위에서 준비해오던 창립대회를 권우락의 개회선언과 임시의장 강철, 서기 권우락 등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자 임석했던 일제경찰이 정책과 표어가 불온하다고 인쇄물을 전부 압수하는 동시에 대회를 금지시킨 것이다.

그러나 울산지역 청년운동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창립을 꾸준히 시도하였다. 새로 선출된 창립 준비위원은 김태성(金泰性), 김맹호(金孟昊), 박문조(朴文祚), 권우락(權又洛), 박학규(朴學奎), 김수원(金水源) 등이다.⁶⁴⁾ 그러나 창립준비위원장 강철, 간부 조형진, 권우락 등은 대회 금지 직후 일제경찰에 검거되었다.

‘울산청년동맹사건’의 내용은 1927년 겨울 이래 울산청년동맹을 조직하기 위해 준비에 열중하던 중 청년동맹의 강령과 당면정책을 등사한 프린트가 치안유지법과 출판법 위반이란 명목으로 울산청년동맹 창립준비위원들을 구속시킨 것이다. 그러나 울산청년동맹의 강령과 당면정책은 조선청년총동맹을 비롯하여 전 조선의 청년단체가 모두 표방한 근본 강령 및 정책으로 일제경찰이 사건을 확대시킨 것이다. 이것은 울산지역의 사회운동이 신간회 울산지회와 울산청년동맹의 창립으로 본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일제 경찰이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⁶⁵⁾

62) 이균영, 1993,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63) 『동아일보』 1927. 12. 16 ; 1928. 5. 21.

64) 『동아일보』 1927. 12. 16 ; 1928. 5. 25.

강철, 조형진, 권우락 등은 2년 동안이나 부산형무소에서 신음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 예심에서 강철과 조형진은 징역 1년 6개월, 권우락 징역 1년을 언도 받았다. 대구 복심에 공소하여 2심에서는 치안유지법 위반 무죄, 출판법 위반으로 벌금 50원을 언도받고 강철, 조형진 등은 출옥하였다.⁶⁵⁾

일제의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청년운동가들은 1929년 6월 2일 울산청년회관에서 울산청년동맹을 드디어 창립하게 되었다. 위원장은 박두정이다.⁶⁷⁾

3·1운동 이후 일제의 새로운 식민지 지배정책인 ‘문화정치’의 공간에서 전개된 이른바 ‘문화운동’이란 청년회운동, 교육진흥운동, 물산장려운동 등 문화적 실력양성운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1920년대 전반기 문화운동의 핵심은 청년운동이었다. 울산지역에서도 울산, 병영, 언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1925년을 전후해서 울산지역에도 각종의 사상단체들이 조직되어 민중운동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소년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민중운동과 각종 부분운동이 지역사회운동 차원에서 상호 인적 조직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운동의 발전은 1928년 3월 신간회 울산지회의 창립과 1929년 6월 울산청년동맹의 설립으로 민족해방운동차원으로 승화되었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 이후 일제의 파쇼지배체제 강화는 신간회 해체를 비롯한 민족해방운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에 따라 합법적 공간에서 활동해온 지역사회운동은 침체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울산지역사회운동도 1931년 이후에는 일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사례를 제외하면 뚜렷한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강재순, 부경대학교 사학과 강사>

65) 『조선일보』 1929. 4. 19.

66) 『조선일보』 1929. 4. 20 ; 1929. 6. 10 ; 1929. 11. 26.

67) 『동아일보』 1929. 6. 5.